



4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4호

(루게 354)

◆◆◆◆◆◆◆◆◆◆ 차례 ◆◆◆◆◆◆◆◆◆◆

만경대에 드리는 노래	2
4월의 만수대에서	5
김일성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8
김일성 주석님의 만년장수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9
아버이수령님이시여!	10
온 누리를 반제자주의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영생불멸의 노래	11
크나큰 믿음	17
사진	29
환희에 찬 이 아침에	41
조선아, 기다려다오	43
사랑으로 지새시는 조국의 밤에	44
가슴에 차오르는 간절한 생각이여	46
어머님의 그 리별은... ..	47
사랑의 자욱	48
아, 눈물이 앞을 가려도	49
위대한 아버지	50
그날에 사는 마음	51
남녘은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	52
어머니 차려입은 치마저고리	53
준엄한 길에서	54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몸바쳐 싸우는 3대혁명소조원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62

만경대에 드리는 노래

가없이 열리인 저 푸른 하늘에
만민이 부르는 축원의 노래
봄빛처럼 넘쳐흐르는 4월!
온 세계의 뜨거운 마음 혼풍이 되어
이 유서깊은 만경봉우에
억만 꽃송이 향기롭게 피우는
경사로운 4월의 명절!

눈부신 수도의 거리들을 지나
여기 나지막한 언덕길을 걷노라
화려한 집들의 계단을 떠나
여기 고향집 추녀밑에 서노라
력사의 땅, 만경대여

여기 오면 언제나
이렇게도 언제나 가슴 들먹이나니
섬돌우의 토방을 어루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회는 젖어흐르고
푸른 소나무숲 설레는 소리마저
뜻깊은 노래런듯 안겨와라

민족반만년의 기다림우에
조선의 태양 솟아오른 영광의 땅이여
그대를 지켜온 력사의 집은
너무도 소박하구나, 그 차림새-
일찌기 어버이수령님 한가슴에 안으신
가난한 조국의 모습 아니런가!

뼈아픈 겨레의 신음소리 들으시며
어리신 나이에 저 사립문을 여시고
이 땅의 어둠을 밀어나가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폭풍치는 백두산정에
주체의 화불을 추켜드시고
이 세상 그 뉘도 줄수 없었던

세기의 광명을 인민에게 주시였어라

피바다를 건너지고 설한풍 헤치시며
일제의 백만총검 불사르시어
기어이 해방하신 새 조선의 지붕아래
홀어졌던 겨레들을 불러들여주셨어라
여기 만경대 고향땅을 떠나시어
혁명의 새벽길에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강토에...

인민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
이 땅 인민들의 모진 고생 생각하시며
수천년동안 다루어온 가난의 쟁기들을 생각하시며
땅을 주시였어라, 공장을 주시였어라
창조의 보람을, 희망찬 노래를
온 나라 인민에게 안겨주시였어라

혁명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
침략자 미제를 함정끝에 처박는
무적의 용맹을 우리에게 주셨어라
폐허우에 무쇠숲을 일으키시며
황무지에 금과도를 불러오시며
자력으로 일떠서는 힘찬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시였어라.

아, 언제나 마음깊이 만경대를 그리시며
그이께서 싸워오신 혁명의 긴긴 나날은
인민에게 모든 행복, 모든 재부 다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
오늘도 어버이수령님께선
온 나라의 도시와 마을을 찾으시여라

하많은 낮과 밤 쉬심도 없이
그이께선 인민의 집을 지으시여라
로동자의 일터엔 자동화의 노래를 주시고
먼 두메에도 공산주의리상촌을 펼치시여라
기나긴 해와 달 쉬심도 없이

남녘땅 겨레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통일조국의 크나큰 집을 세우시여라.

오, 사대와 굴욕의 암흑속에서
자주와 창조의 광휘로운 아침으로
조선을 이끄시여 세계를 밝혀주신
불멸할 주체위업의 반세기
자신을 위해선 단 하루도 바치신 일 없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은 뜻이
만경대여
그대의 산천에 깃들어있거늘

우리 마음속 더운 눈물처럼
티없이 맑은 진주구슬 다 모아
그대의 땅우에
높이높이 옥기둥을 쌓고싶어라
우리 가슴 받아안은 밝은 해빛 모두 엮어
그대의 하늘가에
누리에 찬연한 금빛지붕 올리고싶어라

아, 인민의 온갖 설음 품에 안고
인민의 모든 행복 펼쳐준 땅이여
조국강산에
혁명과 창조의 력사가 흐르고 흘러
영광스러운 세기와 세기들이 지나갈수록
인민은 언제나 여기에 찾아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바치려니

이 경사로운 4월의 명절에
만경대의 품에 안겨 부르는
우리 인민의 축원의 노래
한없이 한없이 뜨거워라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인서

4 월의 만수대에서

가장 경건하고 뜨거운
가장 숭고하고 깨끗한
만민의 축원이 어린 꽃물결 우에
숭엄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광휘로운 새세계를 밝히시며
높이 쳐드신 그 손길
장쾌한 해돋이의 빛발인양
이 우주우에
찬연한 해발을 일으키시여라

저 멀리
수령님 바라보시는 누리에
붉은 노을은 피어오르고
축복의 해빛을 받아안으며
고마움에 겨운 인민의 맑은 이슬이
행복의 창가들에 구슬진다

주체의 봄,
유구한 세월을 피눈물로 적시며
기다리고 기다린 인민의 봄,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만발한 화원이런듯 끝없이 설레이나니

삶의 이 락원을 안아오시려
위대한 수령님 걸어오신 길 천리더나, 만리더나
온갖 풍상고초를 다 이겨오신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떠이고
여기 만수대 언덕우에서
숭엄한 은백색 섬광을 뿌리는
백두산아, 말하라

항일전의 불길에
끓어솟구치던 천지의 푸른 물은
맑은 호심에 강산을 안아 애무하며

저리도 고요하구나

눈보라가 하늘끝에 울던
저 백두의 설령으로부터
행복의 꽃이 날리는
이 락원의 언덕에까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해빛이 가득차 흐른다

소나무 푸른 정든 산천을 떠나시여
일찌기 천리 해방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
백두산 눈바람속에서
주체시대의 새 기원을 열으시여

한줄기 빛이 그리워 울던 강산에
잃어졌던 해와 별을 엮어주시고
일제의 칼에 맞아 피에 젖던 반만년력사를
영광의 세월에 다시 이어주신 불멸의 위업이여

우러르면
이 나라에 드리운 긴긴밤을 몰아내시며
천고의 밀림우에 추켜드시고 오신
주체의 화불이 저 하늘에 타오르는듯

봄날의 그윽한 바람결에
정다이 날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외투자락에선
상기도 백두의 흰눈꽃이 반짝이고
풍요한 조국땅
그 어느 포전길에 젖어든 새벽 찬이슬이
해빛을 머금고 구울러내리는듯,

말하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간절한 축원에 목메이는 강산이여, 인민이여
행복의 락원이 이 땅우에 빛나건만
언제나 백두산에 계시는 심정이지라고
해가 저물도록 농촌길을 걸으시고
밝아오는 새벽을 공장길에서 맞으시고...

인민의 모든 숙망을 꽃피우시며
수령님 걷고 걸으시는 그 자욱
저 백두의 장설우에 이어져
다시 몇몇해더냐,

자주의 봄
설움에 찬 눈물과 영원토록 결별한 인민이
존엄높은 시대의 주인으로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투쟁의 봄
해빛을 안고
끝없는 환희에 설레여라

자동차의 구내우에, 공업화의 대지우에
인간해방의 아름다운 노래가 흐른다
민족의 대번영기를 맞이한 조선이
3대혁명붉은기로 누리를 덮으며 나아간다

아, 이 우주우에
공산주의 장쾌한 해돋이를 펼치시며
만수대 높은 언덕우에
승엄히 서계시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 **김일성** 동지!

시대의 흐름을 이끄시는
위대한 그 손길-
높이 드시여
인간자주의 새세기를 밝히시며
온 누리를 광휘로운 해발로 가득 채우시나니

아아-
저 밝은 해빛이 있어
이 세상 모든것 다 바라보이는 여기,
만수대 높은 언덕우에 서면
인류가 나아갈 천만년 미래가
눈앞에 찬연히 펼쳐지도다!

변흥영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생을 보람있게 보냈다고 말할것입니다

하나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인민 위해 바쳐가시는 당신의 빛나시는 그 생애는

오, 창조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선땅위에

수억만그루의 행복의 나무숲을 이루어놓으셨습니다

하여 제국주의략탈로 황폐화되었던 수림이

오늘은 푸르청청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당신의 빛나시는 그 한생을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오,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인류의 심판을 받고야말자들이

침략의 불을 질러 재더미로 된 강산에

당신께서는

오늘과 같이 빛나는 조선을 일떠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그 생애를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오, 탁월한 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누리를 밝히는 사상을 지니신 당신께서는

잔악무도한 폭군들의 학정아래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창조의 힘과 재능을 주시고

새로운 도덕과 슬기를 안겨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생애를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여

당신께서는 천재적군사전략으로

조선인민을 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통쾌하게도 침략자놈들로 하여금

심대한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시였습니다

당신의 그 생애를 어떻게 노래해야 합니까.

오,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여

친어버이사랑을 지니신 당신께서는

인민들에게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배풀어주시고

새세대들에게 휘황한 미래의 꿈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당신께서 인민 위해 바쳐가시는 한생은 실로

인간해방의 위대한 귀감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류의 결출한 은인들의 상상봉에서도

최고 높이에 서계십니다

하기에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라는 우리는

노을이 퍼지는 1977년 새해를 맞이하며

당신께 심장의 목소리로

가장 심심하고도 열렬한 축원을 올리게 됨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이 절절한 소망을 받아주시시오

밝아오는 새해 1977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1977년 1월 1일

부바까르 까마라

(필자는 세네갈 다카르시 리사임)

김일성주석님의 만년장수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이시여!

수천년 착취와 억압, 천대만을 받아오던

세계인민들은

한없이 자애로운 **김일성** 주석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습니까

탁월한 혁명의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혁명투쟁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혼란속에서 많은 세월 헛되이도 흘러갔습니다

하나 위대한 주석님 계시여 오늘 우리들은

주석님 창시하신 로동계급의 최고봉의 혁명사상

불패의 혁명무기 **김일성** 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회의 미래를 향해 곧바로 내달리고있습니다

제 3 세계인민들은

빨럭불가담운동의 전도를 환히 비쳐주시는

위대한 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갑니다

막을수 없는 조수의 힘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있습니다

주석님이시여

이 무기를, 불패의 이 힘을 주신

위대한 주석님께

우리들은 다함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눈부신 전광이 록음에 반사되고

목란꽃이 만발한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주석님께 충성을 맹세다지기 위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끝이 없습니다

대대로 혁명렬사들의 피가 끓었고

주석님께서 일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유년시대를 지내오신

가난한 생가가 있는 만경대!

여기에서 주체의 찬란한 해빛이

누리에 빛발쳐잡니다

저희들은 청년주체사상연구회의 이름으로

위대한 주석님을 수호하며

주석님께 충성다할 맹세를 담아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목란꽃을 심었습니다

주석님을 우러러 억세계 자라며

해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전하여드릴 목란꽃

목란꽃은 꽃피어날것입니다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고 싸우는 영원한 기쁨을 안고

일본에 주체의 꽃, 충성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김일성** 주석님의 만년장수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활짝 꽃피어날것입니다

나까지마 마찌꼬

(필자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 성원임)

아버이수령님이시여!

넘치는 사랑의 바다속에서
우리의 가슴
끝없는 행복에 젖어있습니다

조국인민들의
행복과 신심을 담아 넘실거리는
저 대동강의 물결마냥
우리의 온몸
한없이 설레입니다

이역의 거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그리워
아침으로, 저녁으로
조국하늘을 우러렀거니...

아버이수령님이시여!
동해의 거센 파도 넘어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온 우리들을
자애로우신 그 품에 안아주시었습니다

지난날
나라없는 백성으로
물위에 뜬 부평초처럼
정처없이 떠다니던 우리를
해빛 밝은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조국 위해 일하는 역군으로 키워주시고
오늘은 또
이 가장 값높은 영광 안겨주시니...

아, 다함없는 감사와 붉은 충성으로
우리 심장 뜨겁게 타오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자랑
대양처럼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무르익고
수령님의 사랑의 물줄기
바다너머
60만의 가슴마다 흘러넘치건만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 안겨주시려고,
탁류에 허덕이는 남녘겨레
한시바빠 건지시려고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는
아버이수령님!

행복에 겨워
노래하고 춤출수록
사랑의 바다에서
환희의 물장구를 칠수록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시는
비길데 없는 크낙한 사랑과 은정에
보답못하는 안타까움
진정 끝없습니다

은혜로운 사랑의 생명수
온 남녘땅에도 파도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
더욱 뜨겁게 불태우렵니다
영생불멸의 주제의 가치
더 높이 추켜들립니다

아버이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김두권

온 누리를 반제자주의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영생불멸의 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에 대하여-

지구상의 수억만 근로대중이 식민지노예의 멍에 밑에 피눈물을 뿌리던 암흑의 세기에 해방의 구성으로,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주체의 기치높이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혁명의 영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5년전 1932년 4월 25일,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몸소 다년간 키워오신 조선혁명군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선진적인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이룩하시고 우리 혁명이 억년 드눌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길고 역센 력사적뿌리인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가지는 거대한 전투적기능을 통찰하시고 한편의 시가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같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는 원쑤의 심장을 꿰뚫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가렬치절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불멸의 혁명가요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필하시여 수천만근로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시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4년 겨울 북만원정의 간고한 길에서 원쑤들의 대병력이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조이면서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소멸》하려고 악착하게 달려들었던 그 엄혹한 환경에서 더구나 중환에 드시여 40도의 고열을 이겨내시면서 불

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를 창작하시고 대원들에게 그 가사를 한자한자 불러주시여 그들로 하여금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와 멸적의 투지로 불타게 하시였다.

《반일전가》는 그에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견결한 반제혁명사상과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투쟁의 한길로 펼쳐나서게 하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4년 겨울 북만원정의 간고한 길에서 대원들을 고무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원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해야 하오. 이 길만이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동포형제들을 구원하는 길이요. 이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는것이요. ...

우리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세울 때까지 싸워야 하오!

《반일전가》의 사상과 기백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하고 견결한 혁명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다.

1.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라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 방화 착취 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노래는 이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대륙침략에 미쳐날뛰는 일제침략자들의 횡포무도한 야수적본성을 날날이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제야수놈들의 발굽아래 짓밟히는 삼천리 금수강산,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그 누구 할것없이 놈들의 총검아래 피흘려 쓰러지고 나의 집과 너의 발, 우리의 모든 살림이 놈들의 잔인한 구두발밑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고마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모두의 가슴을 찌른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귀여운 아들딸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정든 고향마을을 불사르며 수천만 인민대중의 고향을 찢내고 살림살이를 모조리 강탈하는 천하에 악독한 살인귀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어찌 참을수 있으랴!

일제야수들을 단죄하는 노래의 음조는 비분에 차 넘치고 한없는 적개심으로 끓어오른다. 일제놈들이 발을 디딘 조국땅 어디서나 그리고 망국노의 처지로 전락된 우리 인민 그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강요된 이 비참한 현실을 펼쳐보이면서 노래는 일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끓어오르는 격분에 넘쳐 단죄하고 있다.

노래는 1, 2절에서 앉아서 죽느냐 일떠서서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인 절박한 현실, 조국과 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이른 준엄한 환경을 펼쳐주었다면 3절에서는 일제침략자들을 항거하여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장엄하게 펼쳐준다.

3. 우렁차게 들려오는 반일전소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고향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우렁차게 들려오는 반일전소리, 이는 피바다, 불바다 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며 갈망하던 민족재생의 광휘로운 해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기치아

래 손에 무장을 잡고 일떠선 항일무장대오의 우람찬 진군을 함축된 형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렁찬 반일전소리에 호응하여 방방곡곡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인민대중의 웨침소리, 이는 우리 인민이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시대적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뜻깊은 시적형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아래 항일무장투쟁을 벌려나가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높은 단계으로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이 거세찬 전진, 불패의 힘을 그 어느 원쑤가 감히 막아나설것인가. 원쑤의 숨통을 조이는 혁명대오의 위력한 진군앞에 적들은 공포에 떠난다.

노래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인민의 슬픔과 원한은 그 얼마나 심각하며 원쑤들을 항거하여 사랑하자는 조국과 부모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떠선 항일혁명전쟁의 세찬 불길은 그 얼마나 장쾌한것인가!

여기에는 일제침략자들이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강점하고 야수적으로 억압착취하는이상 오직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혁명의 무장을 들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위대하고 심오한 혁명사상이 줄기차게 맥박치고있다.

노래는 나아가서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유일한 신념으로 새기고 간난과 역경을 뚫고넘으며 이 길에서 기어이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고야말 강인한 혁명적의지를 펼쳐준다.

4. 《왕도락토》 세우려는 놈들의 몽상 반역자는 발버둥치며 찢뜰들맨다 대포 땅크 비행기로 미쳐날뛰며 일기 이기 《대로벌》을 진행하노나

5. 혁명세력 장성함을 보지 못하고

백색테로 겁에 질린 리기분자는 놈들의 포소리에 흔들리어서 혁명을 배신하고 투항을 한다

노래는 4, 5절에 이르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 나선 일제놈들의 간교한 책동과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단죄하고 놈들의 강압에 굴종투항하는 배신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면서 항일혁명전쟁초기의 혁명정세의 준엄성과 간고성을 보여준다. 일제놈들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대륙으로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으며 괴뢰 《만주국》을 조작하고 《왕도락토》의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면서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파렴치하게 날뛰었다.

놈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그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하여 발악하였으며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포와 탱크를 동원하고 비행기까지 띄우면서 수십만의 《정예부대》와 사단들을 거둬드는 《대토벌》으로 들이밀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간교하고 횡포한 기도는 첫걸음부터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노래는 《왕도락토》의 기만적구호를 휘두르던 놈들의 기도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는것임을 예리하게 까밝히고 일제와 그 주구놈들이 혁명대오의 전진앞에 발버둥치며 찢찢매매 돌아가는 역사의 움직임을 산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노래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앞에 사상적으로 굴복한 투항분자들의 배신으로 하여 혁명대오앞에 조성된 준엄한 정황에 대해서도 펼쳐보여준다. 노래는 바로 이러한 배신과 변절의 본질을 심각히 파고들면서 그것을 혁명세력이 높아감을 보지 못하는자들의 행동으로, 다시말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주체적혁명로선을 신념화하지 못하고 일제놈들의 포소리와 백색테로에 겁을 먹고 기가 질린 리기분자의 추악한 배신행동으로 예리하게 규탄하고있다. 여기에는 혁명적지조와 절개도 없는 추악한 인간스레기들을 한없이 경멸하고 증오하는 혁명정신이 도

도히 굽이치고있다. 이처럼 노래는 항일혁명전쟁이 바야흐로 고조되어가는 장엄한 역사적환경에서 혁명투쟁앞에 조성된 간고성, 준엄성을 심각히 보여 주면서 이 난국을 뚫고 미래의 승리를 앞당겨오고 야말 굳은 신념과 투쟁의 결의를 절절하게 표현하고있다.

6.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번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부르자

노래의 이 마지막절은 조국해방의 불멸의 기치, 항일무장투쟁의 붉은 기치아래 모든 인민대중이 떨쳐일어나며 철통같이 단결할데 대한 불타는 호소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신념으로 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피끓는 투쟁결의를 자랑스럽게 울려준다.

노래는 후반에서 일제의 온갖 회유기만과 파괴책동, 야수적탄압도 항일무장투쟁의 기차아래 줄기차게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의 길에서만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해방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확신에 넘쳐 보여주고있다.

노래는 항일무장투쟁의 붉은 기치아래 일제파쇼테로통치를 뒤집어엎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를 부르는 가슴뜨거운 호소를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승리의 미래에 대한 랑만주의정신으로 힘치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일제의 강점아래 짓밟히는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한가슴에 안고 놈들의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준렬히 단죄하였으며 이 기초우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필연성,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심오히 노래하고있다.

또한 노래는 항일무장투쟁의 주체적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한길우에서만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는것을 훌륭히 밝혀내

고있다.

이와 같이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의 사상적내용과 서정적형상의 기초에는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이 굽이치고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인민대중의 모든 다양한 투쟁형태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가 관통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일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있는 **《반일전가》**는 반제민족해방전쟁의 새로운 혁명적 주제를 개척한 불멸의 노래로서 시가예술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와 같은 불멸의 노래를 가지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아래 신음하는 수억만 인민대중은 그 어떤 종주국의 혁명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을 묶어세워 혁명의 무장을 들고 민족해방의 길에 펼쳐나서야 한다는 혁명의 불같은 진리를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사에서는 반제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전쟁의 전투적주제가 더욱 힘있게 펼쳐지게 되었다.

가요는 이 위대한 혁명사상을 시대현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정론적분석에 기초하여 생동한 생활형상을 통하여 펼쳐보여주고있으며 또한 그것을 수억만 근로대중의 절박한 생활의 요구, 그들의 구체적인 체험과 지향에 확고히 안반침하여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의 시대상과 혁명정세를 예리하고 심오하게 보여주고있다.

노래에는 조선을 강점한후 다시금 대륙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탈을 더욱더 강화하여나선 일제놈들의 책동,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에 따라 펼쳐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 새로운 단계, 피뢰 **《만주국》**까지 조작하여 세계를 기만하려던 적들의 어리석은 시도와 1930년대중엽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발악적인 **《로벌》**작전의 파탄 등 혁명투쟁의 준엄성과 간고성을 말해주는 제

반 역사적사실들이 가사의 간결한 형상속에 가장 심오히 집약되어있다.

여섯련의 가사에 이처럼 시대현실의 본질적측면을 이루는 정치적사변들과 역사적사실들을 심오하고 예리하게 반영함으로써 한편의 노래는 능히 시대의 목소리로 되어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노래는 자기의 사상적주장을 전민족, 전체 인민의 사회적처지와 지향으로 구체화하여 그들의 절박한 생활의 호소로써 펼쳐보여주고있다.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할것없이 모두가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려 쓰러지고 나의 집과 너의 밭이 모조리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고만 쓰라린 현실로부터 올라오는 가슴아픈 원한의 호소를 들어보라.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나》**, **《너》**, **《그대》**의 처지로 구체화되고 다시금 그것이 전체 인민, 전민족의 생사존망의 문제로 일반화되는 시적형상은 그대로 조국의 운명을 인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체험과 튼튼히 밀착시킨 독특하고 위력한 형상이다.

노래는 또한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관련되는 거대한 사상적문제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제기하고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는 그 내용에서 직접 조국과 인민의 처지와 운명 및 그 미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본질적내용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의 그 간고한 시각에 대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고 혁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로서의 이러한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구현하여 시의 사상감정은 완전히 조국, 인민의 운명과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숭고하고 견결한 반제혁명정신을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생활적지향으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강렬한 투지와 필승의 랑만 속에 줄기차게 펼침으로써 심원한 사상을 혁명적기백과 혁명적서정을 통하여 더욱 억세게 올려준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노래의 감정조각과 서정성의 구현에서 혁명투쟁에 대한 열정, 원쑤격멸의 투지를 필승의 신념, 승리의 락관과 통일시켜 시적기백, 시적정서로 훌륭히 조성함으로써 참다운 혁명적서정이 높이 나래치게 하였다.

우리는 **《반일전가》**의 감정선에서 혁명적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감정조직의 본보기를 찾을수 있다.

노래는 1절과 2절에서 조국강토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하고있는 야수적만행에 대한 비분의 감정을 생활적으로 심화하고 축적한 다음 3절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의 이끄심따라 원쑤를 항거하여 항일혁명전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펼쳐준다.

가요는 다시 4절과 5절에서 혁명투쟁이 발전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원쑤놈들의 기만책동과 최후발악 그리고 배신자들이 출현하는 등 준엄하고 간고한 정황을 무겁게 올려주며 이러한 정황을 뚫고 6절에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의 철통같은 단결과 혁명적지조를 견결히 고수하며 반제혁명투쟁의 한길에서 맞게 될 승리의 미래, 혁명적랑만을 힘있게 노래하였다.

그리고 비분을 투지로 바꾸며 간고한 정황을 뚫고 헤쳐나가며 미래를 안아오는 감정선의 진실하고 론리적이며 즐기찬 발전으로써 기백을 펼치고 혁명적서정이 나래치게 하였다.

비분과 투지, 간고한 투쟁과 랑만 등 다양한 색채의 감정들이 엇바뀌면서 감정선이 발전되어나가는 과정은 또한 색채상으로 보아 대조되는 감정을 서로 맞세우는 행정으로 립체적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이러한 감정조직의 바탕우에서 혁명적서정은 힘있게 솟구쳐오르고있다.

노래는 비분의 정서에 투쟁의 열정을 맞세워 혁명투쟁의 기백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간고한 정황에 미래의 락관을 맞세워 혁명승리의 랑만을 높이

나래치게 하는 대조적이며 립체적인 감정조직방식을 취하면서 투쟁의 기백과 승리의 랑만을 강렬하게 살리고있다.

감정구성의 립체성은 또한 대응되는 감정조직이 3개절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새롭게 반복심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노래의 사상감정을 짜인 구성속에서 더욱 심화하고 앙양시켜나가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리하여 조국과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원한은 역경을 뚫고나아가는 그들의 견결한 투지를 걸쳐 그것이 가져올 승리의 미래에로까지 상승되고 앙양됨으로써 사상감정의 즐기찬 심화과정을 밝아나가고있다.

이러한 감정조직에 의거함으로써 투쟁과 랑만의 혁명적감정은 충분한 생활적축적을 가지고 진실하게 전개되게 되었다.

또한 감정발전의 이러한 생활적진실속에서만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으며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난다는 혁명의 진리와 원쑤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혁명승리의 미래가 다가온다는것이 깊은 철학성을 띠고 강렬한 형상적 힘으로 안겨오게 되었다.

이것은 생활의 진실에 확고히 의거할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사실주의 시가예술에서의 감정조직에 대한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이 불멸의 노래의 감정조직이 노는 특출한 기능은 다음으로 혁명투쟁의 기백과 승리의 랑만을 뚜렷이 살릴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시가예술이 가져야 할 혁명적서정을 튼튼히 마련하는 담보를 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문예활동은 항상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것이었다.

혁명시가에서 혁명성과 랑만성은 혁명투쟁에 대한 열정과 의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랑만에서 뚜렷이 발현된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세련된 감정조직으로 투쟁의 열정과 승리의 랑만을 우렁차게 구가함으로써 혁명적서정을 이루는 기본정서를 시형상에 충만시키고 시가예술에서 혁명적서정을 강화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의 높은 예술성은 전반적인 절배치와 절의 내용조직, 시행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수하고 세련된 인민적음악형식의 정수인 절가형식으로 관통시킨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일전가》는 그 사상을 형상적으로 련관된 여러절을 거쳐 폭넓게 밝히는 방식으로 절들을 배치하고있다.

레컨대 조국과 인민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관한 형상은 1절과 2절을 거쳐 폭넓게 밝혀지고있고 이것으로써 그 사상이 웅심깊이 펼쳐지는것을 볼수 있다. 또한 4절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은 혁명대오를 둘러싼 내외환경을 분석적으로 파고들면서 5절에로까지 확증되어가는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절배치는 가요의 사상주제를 보다 폭넓게 해명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실지로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가 시대적인 화폭을 폭넓게 담으면서 가요의 전반사상을 웅심깊이 펼쳐고있는것은 이처럼 절배치의 독특하고 세련된 구사에도 기인하는것이다.

《반일전가》는 또한 절의 내용조직에서도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시문장의 론리적구조로 보아 4행으로 이루어진 한개절은 2행을 하나의 형상단위로 하여 내용상 전 후반으로 갈라지고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상감정의 폭을 보다 넓게 잡고 그것을 웅심깊게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우월하다. 다시말하여 두행을 하나의 형상단위로 만듦으로써 생활을 보다 여유있게 담을수 있으며 폭넓은 생활내용에 토대하여 감정의 진폭도 더 크게 잡을수 있다.

이것은 작은 용적의 절가에서도 생활과 사상을 보다 풍부히 담을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여준다.

절의 내용조직과 관련되는 이러한 시문장구조는 가요의 사상감정을 장중하고 웅심깊이 펼쳐수 있게 한 우월한 형상적바탕으로 되었다.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또한 8, 5조의 음수률을 기본으로 시행을 조직함으로써 표현력을 높이고 톨조를 고르롭게 보장하였다.

8, 5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한 다양한 생략의 수법과 음절수를 줄이는 략음의 수법, 음절수를 더하는 가음의 수법 등은 운률의 구성과 형상적표현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례를 들어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라는 시행은 더욱더 요란해지는 말발굽소리의 음향을 생동하게 울려주면서 놈들의 침략책동이 보다 강화되고 그 발굽아래 짓밟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 사랑하는 부모형제의 비참한 모습을 련상으로 심각히 안겨주는 강한 표현의 힘을 담고있다.

또한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에서 느끼는바와 같이 일제의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당하는 우리 인민의 고통을 서슬푸른 총창에 흐르는 붉은 피로, 색채의 강한 대조속에 시각적형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표현의 예리성을 얻고있으며 **《놈들의 포소리에 흔들리어서》**에서와 같이 원썩들의 탄압과 강압에 사상적동요를 일으키는 변절자들의 추악한 의식상태를 대포소리의 음향에 따라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로 표현함으로써 형상적일치의 효과성을 나타내게 하고있다.

이처럼 매개의 시행들을 전개시키는 행정에 뜻은 더욱 깊어지고 형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한편 부르기 쉽고 기억에 편리하도록 톨조가 형성되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노래가 혁명적이면서도 유순하게 될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훌륭히 마련될수 있었다.

참으로 불멸의 혁명가요 **《반일전가》**는 그에 담겨진 반제자주의 위대한 혁명사상, 억만대중의 심금을 틀어잡는 혁명적기백과 전투적서정, 세련되고 완벽한 감정조직과 절가형식, 시적표현의 거대한 힘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 가사문학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과시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인류가 쌓은 시가예술의 탑우에서 불멸의 빛을 뿌리며 영원한 사랑을 떨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 백두밀림에서 높이 올리던 이와 같은 혁명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조국의 자주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것이다.

리수립

크나큰 믿음

정원에는 눈이 얇게 깔려있었다. 얼기설기 가지가 얹힌 정원수들이 흰눈을 뒤집어쓰고 낮추 가지를 늘어뜨린채 서있었다. 이따금 나무가지우의 눈들이 떨어져내리며 눈가루들이 흩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깨우에 외투를 걸치시고 가볍게 눈을 밟으시며 정원을 거닐고계셨다. 대기는 맑고 신선하고 사위는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큰 나무밑의 눈덮이지 않은 잔디밭에는 박새들이 날아들어 목은 풀잎들을 쫓고있었다. 수령님께서 걷음을 멈추시였다. 눈내린 날 아침이면 자주 이렇게 정원에 무리로 날아드는 박새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새들을 놀래울가 저어하시듯 가시던 길로 돌아서시였다.

해빛이 퍼져오른 정원은 겨울날씨답지 않게 따뜻하였다. 어디선가 눈녹은 물이 떨어져내리는 단조로운 음향이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약간 눈을 좁히시고 벌써 봄의 서기가 어린듯한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설을 앞둔 지난해의 12월은 몹시도 추웠었다. 눈도 많이 내렸다. 립철에서는 길이 막혀 차들의 운행이 중단된 형편이였다. 하지만 중간지대, 평지대에서는 밀보리밭에 눈이 쌓여 어느때 없는 흑한속에서도 좋은 월동조건이 마련되였다. 그런데 새해에 잡아들어 소한을 넘기자 갑자기 봄날같은 날씨가 계속되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정월달안으로 새해 농사차비를 말끔히 끝내려고 일손들을 다그쳤다. 눈덮인 벌판에는 퇴비무지들이 쌓이고 중간지대의 다락밭들에서는 소토굽는 연기가 자욱히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새해정초부터 농촌현지 지도를 떠나시여 수천리 먼길을 다녀오시였다. 함북일대의 산간마을로부터 서해안의 간척지마을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는 수많은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였으며 직접 만나신 농업근로자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이께서는 올해농사뿐만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전망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

고 한달가까운 시일을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보내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이 과정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문제들을 찾아보시고 끝없는 생각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으로 돌아오신지 벌써 열흘가까이 되셨으나 농업에서의 결정적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깊은 사색속에 잠겨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눈밟는 소리에 앞을 보시였다. 부관이 기쁨에 넘친 밝은 얼굴로 걸어오고있는것이였다.

《무슨 일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눈덮인 전나무가지를 가볍게 잡으시고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물으시였다.

《수령님, ××방직기계공장에서 분기계획을 끝냈다고 합니다.》

《분기계획을?...》

《예, 그리고 로력도 많이 내놓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200명을 내놓겠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자리에서 눈우에 자국을 찍으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지난해 3.4분기까지만도 매번 계획을 미달하던 공장이였다. 설비, 자재도 부족하고 장정로력도 500명이나 딸린다고 하던 공장이였다. 그런데 벌써 분기계획을 끝내고 로력을 200명이나 도로 내놓겠다고?...

《수령님, 고석봉지배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로력을 내놓을뿐만아니라 산업텔레비죤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실습나간 대학생치녀가 지배인을 도와주고있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실습나간 대학생이?...》

방으로 들어오신 그이께서는 창가의 화분앞에 서시였다. 금방 흙을 뚫고 솟아오른 강냉이싹이 화분안에 가득히 돌아있었다. 중간지대의 어느 연구소에 나가있는 농업대학출신의 젊은 연구사가 새로

만들어낸 강냉이종자를 보내온것을 심은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새 종자의 발아상태를 알아보시려고 손
수 화분에 심으시고 싹트기시험을 해보시는것이였다.

《실습나간 대학생이 지배인을 도와준다고?...》

수령님께서는 연한 강냉이싹을 만져보시며 생각
에 잠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당제5차대회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경공
업부문공장들에 대학생들을 파견하시였었다. 대학
생들이 파견된 최근 몇달동안에 그들이 나가있는
공장들에서는 놀랄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것
은 단순히 새 기술혁신이나 계획과제 수행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과 일군들
의 사업방법에서까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이전에 없던 성과였으며 변화들이였다. 당장 500
명의 로력을 더 달라고하던 X×방직기계공장에서
200명의 로력을 도로 내놓겠다는것이나 생산계획
과제마저도 못하고 바빠 돌아가던 고석봉지배인이
산업텔레비죤화까지 하겠다고 하는것이냐 다 놀라
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생들이 불러일으킨 이
약동하는 생활의 맥박을 두고 지금 깊이 생각하시
였다. 농업대학출신의 젊은 연구사가 새 강냉이종
자를 만들어 보내왔을 때도 그이께서는 지금처럼
생각에 잠기시였다. 일군들의 사업성과를 기뻐하고
축하를 보내주는것은 누구나 할수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성과의 기초가 되고 바탕으로 되는 그 힘의 깊
이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창조적탐구와 재능있는
지혜와 놀랄만치 기특한 그 열정, 그 패기에 대하여
생각해보시는것이였다.

가볍게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섰다.

《수령님 X×제철소확장공사장에 나갔던 강민동
지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오.》

부관이 나가고 강민이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도 그이께서는 사색을 계속하시였다.

(고석봉동무가 산업텔레비죤화를 하겠다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배인을 도와주고있는 대학
생은 어떤 동무인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여
송수화기를 드시고 교육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찾
으시였다.

《X×방직기계공장에는 어느 대학에서 나갔습니
까? 기계대학? 김책공업대학에서도 나갔다고?...좋
습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다른쪽손에 바
꿔드시고 방금 고석봉지배인이 전화로 알려진 이야
기를 하시였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와 높
은 숨결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그 일군과
한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방안에 강민이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강민에게
쏘파를 가리키시며 앉으라고 손시늉을 하시고 곧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강민이 앞으로 오시여 그
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였다.

정무원에서 공업부문사업을 맡아보고있는 그 일
군은 지난해에 현지에 나갔다가 설도 그곳 로동자
들과 함께 지내고 몇달만에 평양으로 돌아온것이다.

크지 않은 키에 몸이 다부지고 살갗이 가뭇한 편
인 광산출신의 그 일군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였다.

《그동안 건강은 어떠했습니까? 끼니는 건너지 않
았습니까? 출장 현장에 나가있다더니...》

《수령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새로 일을 벌린
건설장치고는 질서가 잡히고 생활도 안정되어있습
니다.》

그이께서는 즐거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강민의 옆
자리에 앉으시였다.

《지배인이 숨쉴있는 사람이니까. 전쟁때 그 동무
는 련대를 지휘했습니다. 전후에는 큰 발전소만 해
도 두개씩 건설하고... 경험도 있고 담력도 있고 수
완도 있지...》

《예, 지배인동무가 한몫합니다.》

강민은 어떤 감회와 감격이 솟구쳐오르는 마음으

로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그 동무에게는 주관주의도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쏘파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간혹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발전소건설장에 있을 때 한번 나가보니 젊은 기술자가 들고나온 아주 좋은 기술창안을 목살해버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동무들은 지배인의 그 주관주의, 이따금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을 내모는 조잡한 사업방법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좋은 일군일수록 도와줄 일도 많은것입니다.》

《수령님,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의 얼굴에는 경건한 빛이 어리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의 주택조건이며 후방공급정형에 대하여 그리고 노동자문화회관 운영과 건설장상점이며 병원상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알아보시었다.

강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배려로 노동자들의 생활에서는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건설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말씀올리기 시작하였다.

《건설장형편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자주 통보를 해주어 알고있습니다. 내가 걱정스러웠던것은 노동자동무들의 생활형편이었습니다. 그래 건설장일군들의 기세는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도 건설계획과제는 1.3배나 늘어났습니다.》

《수령님, 모두들 해내자는 결심입니다. 어떻게 해낼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중하게 그의 대답을 들으시다가 건설장에 걸려있는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풀어주어야 하겠는가를 다시 물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일반적인 형편이나 일군들의 단순한 타산이 아니라 되도록 구체적인 실정을, 확신있는 전망을 아시고싶으신것이다.

강민은 순간 마음의 긴장이 한껏 조여질대로 조여지는것을 느꼈다. 건설장에는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자재도, 설비도, 기술일군들도 부

족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것은 로력이였다. 건설장 지배인은 1,500명의 로력이 더 있어야 증산과제를 할수있다고 타산하고있었다. 수십리구간의 건설장터전을 한메터이상 높이로 돋구어야 하는 엄청난 공사는 그야말로 무제한한 로력을 요구하였던것이다.

강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자책에 가슴저린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실정을 반영하지 않을수 없어 건설장형편과 지배인의 요구를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이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었다. 밖에서는 약간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나무가지우의 눈들이 가볍게 날리며 밝은 햇빛이 비쳐내리는 공간에 눈가루들이 반짝거렸다. 이따금 창가로 박새들이 날아지났다.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하얀 락수물방울도 보였다. 정원에는 레사로운 겨울날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정서가 깃들어있었다.

《강민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500명의 로력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민의 얼굴을 주시하시였다.

강민은 얼른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가슴을 압박하는 건설장의 절박한 정황은 눈앞에 방불하고 그의 심려를 덜어드릴 방도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쏘파의 팔걸이를 손끝으로 다독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순간 한개 제철소의 확장공사장만이 아닌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로력사정을 헤아려보시는것이였다.

《지금 공업부문에서 필요되는 로력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강민이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강민은 그 수자를 말씀드렸다. 공업부문에서는 사처에 새 공장을 일떠세우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건설을 벌려놓고있었다. 로력은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책상우의 탁

상일력을 몇장 들춰보시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었다.

지금 로력을 달라는것은 공업부문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로력예비를 어디서 충당한단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강민에게 의향을 물으시었다. 강민은 얼른 몸을 일으켰다. 군복모양으로 지어입은 보위색저고리 앞섶이 팽팽히 행겨졌다.

그는 정무원에서 토의하여 농촌에서 로력을 좀 뽑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다.

《농촌에서?...》

그이께서는 가볍게 놀라시는듯한 표정을 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시었다.

농촌에는 로력예비가 없었다. 농촌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신지 며칠 안되는 그이께서는 누구보다 농촌 실정을 잘 아시었다.

당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다. 이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 농촌에서 많은 로력들을 뽑아왔다. 농촌에는 원래 로력이 많지 못하였는데 술한 로력을 뽑아오기까지 하니 농촌로력사정은 더욱 긴장해졌다.

강민은 초조히 긴장해지는 마음으로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었다.

《내가 어느 협동농장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할머니는 6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밖에 남은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농장회계일을 보던 딸까지 군식료공장에서 데려가고 집에서 농장일을 도울 사람은 할머니 한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6남매를 다 데려다가 한번 보란듯이 농사를 짓고싶으나 생각뿐이지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군대에서 제대되는 넷째와 군식료공장에 나가 있는 딸을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는 로력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로력만 있으면 농사도 더 잘 지을수

있습니다. 농촌에 트랙토르와 자동차,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넣어주어 농산작업의 전면적인 기계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농촌로력을 일방적으로 뽑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길을 아래로 숙인채 침착하게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는 강민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초조히 모대기는 빛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걸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의 머리수를 늘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술혁명을 하여 로력예비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오늘 XX방직기계공장 고석봉지배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류달리 사려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강민은 문득 끝없이 조여지는 긴장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가 XX제철소확장공사장으로 떠나기전에도 그곳 지배인에게서 로력독촉이 있었다. 그리고 보면 지금도 지배인은 로력독촉인 모양이었다. 강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이 무한정 안타깝고 죄스러웠다.

《XX방직기계공장 고석봉동무가 500명의 로력을 달라고 한것은 몇달전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의미있는 눈길로 강민을 바라보시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강민은 무릎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수령님께서서는 손을 드시여 앉으라고 하시었다. 그러나 강민은 앉을수가 없었다. 눈썹이 굵고 눈이 검실검실한 아주 위엄차게 생긴 그 일군은 어찌보면 무섭게 노하고 그 누군가를 모질게 꾸짖는것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눈물이라도 떨어뜨릴 안타까움에 모대기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강민의 컴컴하게 어두워진 얼굴과 그와는 너무나 대조되게 번쩍이는 눈빛

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쓰파에 돌아와 앉으시였다.
《강민동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고석봉동무가 도리어 200명의 로력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예?!...》

강민은 어리둥절하였다. 리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뭇 확신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렇습니다. 내놓겠다고 합니다. 실습나간 처녀 대학생이 지배인을 도와주고있답니다. 흥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그리시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고석봉동무가 산업텔레비존화를 하겠다고 당에 제기해왔습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석봉동무가 <인해전술>을 버리고 기술혁명을 하여 생산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강민의 가슴은 어떤 억제할수 없는 충격과 흥분 속에 높이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강민이로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공장이였고 또한 너무도 잘 아는 지배인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은 그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오후에 함께 공장에 나가봅시다.》

수령님께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실지로 공장에서 로력예비가 나왔다면 제철소 확장공사장에 보낼수도 있는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제철소를 일떠세우는 일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명심할것은 로력의 량비를 없애고 <인해전술>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건설장에서 곧추 이리로 온 강민은 한없이 숭엄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나타난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시면서도 시종 사리정연하고 여유있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에서 강민은 벌써 그 어떤 크고 거창한 시대적 사변을 마음속에 뚜렷이 느끼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건설장에서 곧추 이리로 온 강민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강민이 더러 곧 집에 들어가 휴식도 하고 시간이 있는대로 아이들의 학교에도 들러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요즘 학생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있는지, 학교의 교구비품은 제대로 갖추어져있는지? 그리고 교원들의 새학년도교수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 우화, 과학환상소설들은 또 어떤것이 나왔는지 세세히 아시고싶다고 하시였다.

강민은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가슴깊이 새겨들으며 그속에 깃든 깊고깊은 뜻을 헤아려보려고 마음을 썼다. 자라나는 우리의 새세대들을 훌륭하게 키워 혁명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떳떳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숭고한 지향은 이 순간 강민의 마음속에 말할수 없이 경건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강민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며 문밖에까지 나오시였다. 이때 부관이 급히 그이앞으로 다가왔다. 부관의 얼굴에는 감출수 없는 기쁨이 떠올고있었다.

《수령님, 인민무력부에서 김영식전사의 제대수속이 금방 끝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아, 그렇소?》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모범 포차운전수라고 합니다.》

《그래그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즐겨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강민에게 말씀하시였다.

《농촌에 나갔을 때 만났다면 그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할머니의 딸이 농장에 돌아간지도 벌써 이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식료공장 노동자들이 이번에 농촌에서 데려온 로력들을 되돌려보내기 위한 쉼기모임까지 가졌다는 말씀도 하시였다.

《그러니 농장에서는 경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갔던 식구들이 다 되돌아와 집안이 흥성거리고

농장이 흥성거리고... 올해는 랭상모와 강냉이영양 단지를 질적으로 하고 다락밭까지 정리하여 한번 본때있게 풍년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정초부터 기세들이 대단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줄곧 기쁨과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사업의 난관이 가져다주는 긴장은 그이의 표정에서 찾아볼수가 없었다. 강민은 문득 자기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있는 모든 난관은 벌써 그이의 심중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았고 3대혁명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갈 세찬 불길이 그이의 품속에서 태동하고있다는 가슴벅찬 느낌을 받아안았다.

×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는 천천히 별관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있었다. 정원보다 벌에는 눈이 더많이 내렸다. 서쪽으로 조금 기운듯한 해빛이 승용차의 오른쪽차창으로 비쳐들었다.

그이께서는 눈덮인 별관을 내다보시며 학교에 들려온 강민이의 이야기를 듣고계시였다. 학교사업은 다 잘되어가고있었다. 강민은 학교의 교실들과 교양실들을 돌아보고 교원들을 만나 담화도 하였으며 오랜 교육일군인 녀교장선생과 함께 한 아파트에 나가 아이들의 과외생활반 운영까지 살펴보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만족해하시였다. 학교일이 잘되어가고있다는것도 기쁘셨지만 정무원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있는 학부형이 학교일을 보살펴주니 선생들이 기뻐했을것이라는 생각에도 즐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도 간부들이 학교일을 잘 도와주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강민이가 그이께 보여드리려고 학교에서 가져온 아동과학환상소설책을 펼쳐드시였다. 바다밑을 연구하는 소년과학자에 대한 환상이야기를 쓴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곧 책의 내용에 깊이 심취되신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고 글줄을 더듬어나가시였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고개를 드시였다.

《소년과학자의 기지가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는

바줄끝에 연등어리를 달아매가지고 바다밑을 측정 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이런 방법이 널리 도입되었습니다. 그후 과학의 부흥과 함께 해양기술도 발전하여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깊은 바다밑을 벌써 촬영하며 물밑 텔레비존을 통하여 관찰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기구가 조명하는 매우 조그마한 구역밖에는 관찰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소년과학자는 비행기를 타고 바다위를 날면서 특수한 조명이 달린 기구로서 바다밑을 촬영하고 텔레비존방송도 하며 고기떼를 부르는 음향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고기잡이 구역에 고기를 모아들이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고 현실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느 해양학자가 지금 이런 공상을 하고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의 표정은 너무도 밝고 호방하시였다. 강민은 그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들려주시는 말씀을 심중히 새겨듣고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흥미있는 책들을 많이 써내는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과학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어릴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고 욕망이 없고 환상할줄 모르면 어른이 되어서도 큰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동화작가들이 적고 아이들을 위한 흥미있는 책들이 역시 많지 못하다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인민경제에서 마치 중공업부문생산을 미달한것과도 같은 아주 큰 문제라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업복 바람으로 뛰어나온 공장지배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나는 오늘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내려왔소. 분기계획도 끝내고 로력예비도 얻어내고... 산업텔레비존화까지 하겠다면서?...》

키가 후리후리하고 몸이 강마른편인 고석봉지배인은 허리를 굽히고 눈을 슴벅거렸다. 말할수 없는

감격과 행복감에 목이 메어올랐다.

《그래 이제라도 200명의 로력을 내놓을수 있겠소. 장정로력으루...》

지배인은 신심에 넘쳐 허리를 폈다. 어질고 순박하게 아래만을 내려다보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수령님, 내놓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얼굴에 지배인의 손은 작업복웃주머니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공장의 모든 사업을 요약해 적어넣은 조그만 수첩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배인의 팔을 잡으시였다.

《좋소. 아주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시원히 가슴을 내미시고 어깨를 짚어주시였다.

《××제철소확장공사장에는 1,500명의 로력이 모자란다고 하오. 동무네 절약한 로력을 그쪽에 보내주어도 좋고 농촌에 보내주어도 좋겠소.》

지배인은 황송하여 두손을 마주잡았다.

《수령님, 저희들이 거둔 성과는 전적으로 실습나온 대학생동무들의 성과입니다.》

그는 대학생동무들이 나와서 몇달 안되는사이에 공장에서는 2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이 도입되고 1인당 생산액이 1,4배가 올랐으며 로동행정사업에서도 큰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다.

《그래 대학생동무들이 모두 어디에 있소?》

《직장들을 맡아가지고 나가있습니다. 실습조를 책임진 오순정학생은 주물직장에 있습니다.》

《주물직장에?... 그럼 주물직장에 먼저 가보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지배인을 옆에 세우시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손을 외투주머니에 찌르시고 다른 손으로 공장구내의 여기저기를 가리키시며 그이께서는 만족하게 말씀하셨다.

《2년전에 왔을 때보다 공장이 달라졌소. 건물들도 더 일어서고 구내도 깨끗하고...》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동무들이 공장에 나오자마자 생활문화, 생산문화를 확립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동무들이 선참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구석구석의 먼지를 쓸어내고 길들을 정리하고 꽃밭을 가꾸고 나무까지 심고하여

환경부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늦추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2년전만 해도 구내에는 포장도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길바닥마다 천연화강석을 가져다 깔고 길좌우에는 은행나무들을 심어놓았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발끝으로 화강석바닥을 비벼보시였다. 모래알이 부서지는 소리와 돌바닥에 가죽창이 쏠리는 빠드득소리가 났다.

《아스팔트보담두 낫구만, 아아!》

그이께서는 강민을 보시였다.

강민은 화강석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목메이듯한 감정이 솟아오르며 가슴이 저려났다.

갑자기 어디선가 강철관을 두드리는데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시였다. 처마가 낮고 출입구가 뻥하게 열려있는 기다란 외통채의 주물직장이 보였다. 주물직장 한쪽도통이에는 불그레 녹슨것 같은 통이 굵은 용선로 강철굴뚝이 솟아있었다. 굴뚝보다 엄청나게 더 커보이는 굴뚝그림자는 주물직장 지붕을 가로지나 마당에까지 길게 누웠다.

또 한번 강철관을 두드리는데 같은 소리가 그 마당 아근에서 울렸다.

《이건 무슨 소리요?》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산탄으로 사락을 하는 소립니다.》

《산탄으로?》

《예, 주물직장에 나가있는 오순정학생이 산탄식 사락방법을 새롭게 개조하여 3, 5배의 능률을 올리 고있습니다.》

《3, 5배씩이나?!》

그이께서는 의미깊은 눈길로 강민의 얼굴을 보시였다.

《그렇게 되면 사락작업에서 기계화문제는 기본적으로 풀린셈이요?》

여전히 강민을 바라보시며 지배인에게 물으시였다.

《풀렸습니다. 이제 수폭식사락방법만 성공하면 됩니다.》

《수족식사락방법?》

《예, 오늘 오순정동무가 그 시험을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물직장안에 들어서시였다. 방금 쇠물을 부어넣은 주형에서는 빨간 불꽃들이 날름거리고 용선남비를 물고 돌아가는 천정기중기의 둔중한 굴음소리가 머리우에서 들려왔다.

수령님께서서는 더운 열기와 단내가 풍기는 직장안을 천천히 굽어보시며 사락작업장으로 가시였다. 작업장은 조용하였다. 방금전까지 요란스레 돌아가던 바라반(제품에 붙은 사락을 터는 기계)이며 산탄식사락기계도 다 멎어버렸다.

문득 바라반의 저편 제품무지엿에서 낮고 조용한 녀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목소리의 임자를 찾아 바라반옆을 돌아서시였다. 대학모자를 쓴 녀학생의 얼굴이 보였다. 모자를 이마우로 조금 올려써서 동그스름한 얼굴의 룬박이 또렷한 녀학생은 습관처럼 작업복 앞섶을 한손으로 잡고 서서 모여앉은 작업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있다. 키도 몸도 알맞춤하고 허리에 주름을 잡은 작업복을 입어 한결 몸매가 가쁜해보이는 학생이였다.

《저 동무가 오순정학생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낮은 음성으로 지배인에게 물으시였다. 대답을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서서히 외투앞자락을 헤치시더니 어깨를 낮추시고 귀를 기울이시였다.

《당에서는 지금 서부지구에 대규모화학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로력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처녀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바퀴를 따라 앞으로 굽어든 머리가 어깨우에서 스칠듯이 흔들렸다.

《광산도 새로 개발할것이 많지마는 로력이 없어서 다 개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합성고무공장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으나 로력의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이 어린 처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은근하고 부드러웠다.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

이기 위해서는 다락밭도 만들고 령습지도 개간하며 토지도 정리하고 간석지도 개간하여야 합니다. 간석지에서 바다물을 막고 새땅을 얻어내는 일도 조련치 않지만 거기서 염분을 빨리 없애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염분을 빨리 없애려면 시루식관수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로력이 필요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까지나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려는듯 움직이지 않으시고 귀기울이시였다. 끝없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처녀였다. 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그처럼 가슴에 스미는 절절한 말로 이야기하고있는 처녀의 그 마음이 헤아릴수 없이 소중한하고 미더우시였다.

《합성수지공장에서 비닐관을 많이 생산하여 분수식관수체계와 시루식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면 밭작물의 수확고를 지금보다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화할수 있는 70만정보의 밭에 관수체계를 다 실시하면 35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2년 3작을 할수있는 밭이 우리 나라에는 30만정보나 있습니다. 여기에 2년 3작을 하면 거의 100만톤의 알곡을 더 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논면적을 65만정보로 치고 한 정보에서 벼를 평균 5톤씩만 거두면 325만톤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해에 거의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되는것입니다.》

학생은 잠간 말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에 넘친 열정적인 빛이 흘렀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도 한량없이 마음이 즐거우시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얻어내며 지금 있는 땅을 잘 리용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은 많은 로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로력원천이 적습니다.》

문득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러자 사람들의 기분은 순간에 가라앉았다. 누구

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생각에 잠겨있었다. 학생의 안타까운 심정은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설레이시였다. 처녀의 말은 진정이라기보다 그속에 오히려 가슴저린 아픔이 깃들어있었다. 묵묵히 말이 없고 숭엄한 정적만이 깃든 작업장에 열정에 넘친 처녀의 목소리가 호소하듯이 떨리며 들리였다.

《동무들, 어떤 일이 있어도 수폭식사락방법을 빨리 도입하고 흐름식주물대차를 시작하자요. 한사람의 로력이라도 더 절약하여 로력예비를 얻어내는것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을 올려는 충성스런 일이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들 숭엄한 생각과 뜨거운 결심들을 간직한 얼굴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더 이상 서계실수 없으신듯 앞으로 나가시였다.

《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을 알아본 순정이가 한달음에 그이의 앞으로 뛰어왔다. 말할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의 얼굴에 물결치고있었다.

《수고하오. 학생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손을 따듯이 잡으시고 한동안 흔들어주시였다. 처녀의 얼굴은 팔기빛으로 물들고 눈에는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그래 나이는 몇살이요? 고향은 어디고?...》

순정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젖은 눈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스물세살이라고 말씀올렸다. 그리고 고향은 평양이라고 하였다.

《평양학생이로구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방금 이웃에서 만난 학생처럼 반가와하셨다.

《그래 내내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나?》

《그렇습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고개를 기웃하시교 순정이를 찬찬히 바라보셨다.

《순정이의 얼굴이 낯익구만, 어디서 보았더라?...》

순정이는 막 날듯이 기뻐 두손을 가슴우에 모았다.

《수령님, 아동궁전에서 뵈였됐습니다.

천문지식보급실에서!》

《그렇지, 천문지식보급실에서 보았지, 그때 동무들은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있었지.》

《예, 달의 분화구를 관찰하고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이께서는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그때 천문지식보급실소조에는 열다섯명의 학생들이 있었지. 모두 학자가 되겠다고들 했었는데...》

《수령님, 모두 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 실습나간 동무들도 많습나다.》

《실습나간 동무들도 많다? 모두 꿈들이 대단했었지, 나는 그 애들이 모두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될 때 한번 만나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순정이를 만났구만.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지배인을 도와주고있는 순정이를...》

그이께서는 순정이의 손을 잡아 가까이 당기시였다.

《그래 수폭식사락방법은 어떻게 되어가고있다. 승산이 보이나?》

《수령님, 승산이 보입니다. 아직은 과학적인 수치를 알아내지 못하고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이 중요하지, 신심이!》

그이께서는 가볍게 부르친 주먹을 어깨우로 들어 보이시였다.

《무슨 일이든 신심만 있으면 무서울것이 없소.》

순정이는 목이 메였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그래 생산현장에 나와 일해보니 어떻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그이께서는 다정히 키를 낮추시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기술혁신을 하나 하해도 사람들을 설복하고 고무하고 기술적난관을 타개하는 간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일하자면 이 주물직장에도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진중한 표정을 하시고 주물직장안을 둘러보시었다.

검은 철골물들이 열기설기 얇힌 부영게 보이는 오랜 천정은 주저앉은듯이 편편히 낮았으며 작대기를 받쳐놓은 환기창들에서는 창문모양을 따라 네모나기도 하고 기다랗게 구형을 이루기도 한 희여스름한 광선줄기가 새어들었다.

바닥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듯한 주물모래들이 한 벌 깔리고 석양으로 기우는 해빛이 한줄기 그우로 지나가 모래속에 묻힌 운모립자들이 반짝거렸다. 그때문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쪽은 오히려 더 검컴해보였다.

《수령님, 직장의 채광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순정이가 단정히 말씀을 올렸다.

《며칠전에 직장동무들의 건강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시력장애를 받은 동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주일안으로 채광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천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순정이의 어깨를 두드리 주셨다.

《지배인을 도와주고있는 대학생이 어떤 동문지 알고싶어 내려왔더니 이렇게 똑똑한 처녀로구만.》

창밖으로 바람이 몰려지나갔다. 창문이 덜컹소리를 내었다. 순정이의 작업복앞자락이 펄럭하였다.

강민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옷은 왜 이렇게 젖었나? 날씨도 찬데... 그러다가 감기라도 들리면 야단이지.》

수령님의 걱정스런 음성이 들렸다.

《수령님, 수복식사라방법을 시험하느라고 옷을 적십니다. 학생동무는 마른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빠 돌아갑니다. 벌써 보름가까이 현장에서 밝히고있으나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배인이 진정으로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 무겁게 한마디 하시었다.

《너무 무리하면 안되지.》

그러시고는 또 말씀이 없으시었다.

《오늘은 쉬오. 꼭 쉬어야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타이르시듯, 간곡히 달래시듯 말씀

하셨다.

《나는 동무들이 휴식도 하고 학습도 하고 건강하여 일잘한다는 보고를 받아야 마음이 놓이겠소.》

《수령님!》

그이를 우러르는 처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령님께서 한순간도 쉬시지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수령님의 교시를 다 관철한 다음에 저희들은 쉬겠습니다.》

처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은 어느덧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민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벅차오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처녀를 바라보았다.

모든것을 이해하고 모든것을 자각한 새세대, 위대한 수령님께 온 심장과 넋을 바친 혁명의 새세대!...

과연 우리 일군들이 이처럼 열렬하고 이처럼 땀차고 이처럼 몸부림치는 열정으로, 솟구치며 불타며 소용돌이치는 고무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고있었던가!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끝없이 숭고해졌다. 이 숭고하고 열렬히 뜨겁게 고통치는 감정앞에 강민은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가슴이 설레이신듯 창밖을 내다보고계셨다.

창너머 어디서 솟아오른 창백한 용접불꽃이 병곳하고 주물직장안을 비쳤다.

《그래 동무들이 이곳에 나와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것이 무엇이요?》

수령님께서 나직이 그러나 저력있는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순정이는 고개를 들고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수령님, 저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제때에 정확히 관철되지 않는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2년전에 주신 교시도 집행하지 않은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풀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지배인동지의 방조를 우리가 받고있는 형편입니다.》

순정이의 얼굴은 어떤 절박한, 격한 표정으로부터 서서히 피여오르는 밝은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제는 풀렸다. 이제는 풀렸단말이지...》

문득 생필직장 저쪽에서 유치원아이들이 《공장
에서 돌아오신 아빠앞에서...》 하고 풍금에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수령님!》

지배인은 가슴찢기는듯한 괴로움을 느끼며 머리
를 들었다.

《저희들은 아직 당의 의도대로 일하지 못하고있
습니다. 대학생동무들의 방조가 아니었다면 저희들
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 2년전에 공장에 오시여 일군
들이 주먹치기로 일하지 말고 기업관리를 과학적으
로 하고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1인당 생산액
을 결정적으로 높이라고 가르치시었는데 저희들이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로력랑비가 많았고
공장에서 세운 기술발전계획도 잘 집행하지 않아 1
인당생산액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런데도 저는 우에다 대고 자재를 더 달라, 설비를
더 달라, 로력을 더 달라고만 조르고 수령님의 교시
를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심중히 그러나 너그러운 표
정을 지으시고 지배인을 바라보시었다.

《일군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부단히 사상단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락후해져서 현
실발전에 뒤지게 되는것이요. 나는 동무들이 지난
시기에는 어떻게 일했든지 지금에 와서 기술혁신운
동도 잘하고 기업관리도 잘하고 산업텔레비존화까
지 하여 생산관리를 더욱 현대화하겠다고 하니 그
이상 기쁜것이 없습니다. 공장지휘성원들은 3대혁
명수행에서 투쟁대상이 될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중
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지배인은 눈물이 솟아올랐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그이께 심려를 끼쳐드렸는가. 하지만 오늘의
크지 않은 성과를 두고 것처럼 충심으로 기뻐하시
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수령님이시었다.

지배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고 수령님을 따르
는 충실성도 새롭게 배우고 당의 기치, 혁명의 기치

를 높이 들고 나가는 혁명가의 패기와 열정도 새로
게 배우며 다시 또다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일하
겠다고 말씀드리고싶었으나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런데 강민동무.》

수령님께서는 강민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그쪽 건설장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공장
에 대학생들을 내보내여 사업을 도와주기전까지는
고석봉동무가 말한것과 같이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 비단 이 공장 하나만이 아닙
니다. 지금 여러 공장에 나가있는 대학생동무들의
보고를 들어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몇개 단위를 직
접 료해해보아도 그렇고 일부 오랜 간부들속에서는
주관주의, 경험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은 지난날의 경험만을 밑천으로 삼아가지고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업은 상당한 높이에 올
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10년, 20년전에
써먹던 낡은 사업방법을 답습하면서 주먹치기로
일합니다. 그러니 로력랑비, 자재랑비, 설비랑비가
많고 생산은 오르지 않습니다.》

《…………》

강민은 가슴에 사무치는 깊은 감동과 회오의 쓰
라림을 함께 느꼈다.

《지금 건설장형편은 이 공장의 이전 형편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하여 막힌
고리를 풀 생각은 않고 <인해전술>에 매달리고있
습니다. 저는 그 동무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내
려가기는 하였지만 인차 물젖고말았습니다. 오늘
대학생동무의 투쟁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면서 확
실히 저희들이 충실성이 부족했고 당의 의도와 방
침을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부족하다는것을 알았
습니다. 오늘 밤차로 건설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차로?... 그럼 건설장동무들이 요구한 1,
500명의 로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령님, 로력을 받지 않겠습니다.》

《로력을... 받지 않겠다?...》

수령님께서는 심중해지시었다. 그이께서는 응당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것이였으나 한 일군의
결심에서 일어난 그 돌발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심
중히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면 1,500명의 로력몫을 무엇으로 메꿀 생각입니까? 무엇으로 1,500명을 대신하겠습니까?》

《수령님, 대학생동무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은 1,500명의 로력이 아니라 몇십명의 대학생을 요구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으시었다. 주물모래가 깔린 바닥에는 자주 옮겨딛는 그이의 발자국이 수없이 찍혔다.

(몇십명의 대학생을...몇십명의...대학생을?!...)

드디어 그이께서 강민을 보시었다.

《그래 대학생동무들을 달란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강민의 음성은 열렬히, 벅차게 울렸다.

《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학생소조들을 파견해주십시오.》

순간 그이의 얼굴에는 열정적인 환희가 떠오르시었다.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사색 속에서 오래전부터 무르익어오던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꽃은 벌써 일군들의 가슴속에 생신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기 시작한것이다.

《보내주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힘과 열정이 충만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학생들을 파견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혁명적새세대들입니다. 대학생들은 비록 기술을 깊이는 몰라도 뒤떨어진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을 분간할수 있으며 새것을 좋아하고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는 혁명성이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혁명적인 부대가 필요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해 대학생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합니다.》

순간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에 환희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강민은 가슴이 뛰었다. 얼마나 위대한 구상인가! 얼마나 현명한 조치인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절박하게 요구

되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철하게 제시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오늘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다시 한번 찬란히 밝혀주고있는것이다.

세인을 놀래우며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령마루에 높이 올라선 조선의 천리마는 이제 또한번 비약의 나라를 활짝 펼치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도도히 날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물직장을 나서시었다. 이제 는 떠나실 시간이 된것이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그이의 품에서 떨어지기 아쉬워 울먹울먹하고있는 순정이의 손을 따듯이 잡으시었다.

《동무네 전문지식보급실 소조원들을 언제면 다 만날수 있을까?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아니, 3대혁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돌아오면 다 만나지!》

순정이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순정이의 어깨를 따듯이 어루만지시며 몸건강하라고, 일 잘하라고 거듭거듭 당부의 말씀을 하시었다.

승용차는 눈덮인 길우를 소리없이 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바래려고 공장밖 멀리까지 따라나온 사람들이 휘우듬히 등성이진 길 저편으로 사라진지도 오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사색에 잠기신채 이윽도록 눈덮인 별판을 바라보시고계셨다.

《얼마나 귀중한 대학생들입니까, 얼마나 슬기로운 새세대들입니까. 우리 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양양합니다.》

밖에서는 가볍게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였다. 석양의 락조가 비낀 눈덮인 별판에 물러가는 눈보라는 마치도 훑날리는 넓은 기폭을 대지우에 펼친듯이 붉게 보이였다.

허창득

사 진

하루해는 저물어 어느덧 사위는 어두워졌다.

집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그물위장을 풀러덕거리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이를 업고 길옆에 비켜섰던 너인이 자동차를 따라잡을듯이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너인은 등에 업혀 잠든 어린애를 이따금씩 훑으며 달래강다리로 통한 큰길을 부지런히 걷고있었다.

분임은 지금 돌이 갓 지난 아들의 사진을 찍으며 집을 나선것이였다. 실은 오늘아침 일찌기 군으로 떠났었는데 도중에 폭격을 겪어나니 중낮이 되어서야 읍에 닿을수 있었다. 그런데 사진관 하나는 폭격에 형체가 없어지고 다른 사진관도 필립자루가 타버렸다는것이 아닌가.

분임은 다리땀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싶었다.

그는 읍사진사에게 줄라서 달래강 건너 현동사진관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한장 얻어가지고는 다시 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날이 이렇게 어두웠던것이다.

분임은 힘을 내어 걸었다. 저녁켄에 있는 폭격에 달래강다리가 끊어지지만 앉았으면 그런대로 열사전으로 현동에 가닿을것 같았다.

분임은 잠시 땀을 들어가려고 손이 돌기 시작한 아카시아가로수밑에 앉았다. 그리고 었던 애를 앞으로 돌려안았다. 현우는 혼곤히 잠들어있었다.

(애두 참 무슨 잠을 이렇게 잘가.)

분임은 아들과와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었다. 그래서 애기의 뺨을 몇번 건드렸으나 현우는 그 포동포동한 손으로 뺨언저리를 허우적거릴뿐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더니 문득 잠결에 뺨긋하고 웃었다.

(요렇게 어린것도 꿈을 꾸나!)

그는 아들을 대견히 내려다보면서 방금 잠결에 꾸 꿈이 어떤것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현우에게 무슨 꿈을 꾸었느냐고 물어보려는듯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자기의 불을 가져다댔다.

보드라운 머리칼이 불을 간지른다. 남편을 닮았는지 앞으로 뻗뻗이 일어난 머리카락은 보기에는 찻찻할것 같은데 어찌나 보드라운지 모르겠다.

불쑥 군대에 나간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움이 가슴에 짙 물려들었다...

집을 가득 실은 군대차 한대가 휙 지나가면서 마른 먼지를 일으켜놓았다.

그 자동차를 보자 분임의 생각은 다시 달래강다리가 무사했으면 하는데로 흘렀다.

한창 바쁜 발같이철에 올곤 하루동안이나 로상에 서 헤맨 시간이 아까왔다.

더우기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새로 소거리반을 못고 보잡이런습을 하다가 떠난 길이니 한가하게 다리섬을 할수 없다는 생각이 또한 새삼스럽게 들었다. 그는 현우를 등뒤로 돌려업고 다시 길을 떠났다.

분임이가 달래강다리목에 다달아보니 술한 차들이 몰려있었다. 차체 전체에 그물을 씌우고 풀과 가둑나무가지들로 위장해서 마치 바위등걸처럼 거뭇 거뭇하게 보였다.

저녁녘에 달려들었던 적기무리는 석대씩이나 강물과 산턱에 처박히면서도 끝내 건너편 기슭쪽의 경간을 끊어버렸었다. 그래서 주변농민들과 군대들이 벌써 세시간째나 다리복구전투를 다그치고있는데 인제 조금만 기다리면 차들이 통과할수 있게 된다고들 했다. 그러나 아직도 끊어진 경간쪽에서는 통나무를 찍는듯한 도끼질소리와 망치질소리가 그칠새 없이 들려왔다.

원래 달래강다리는 차가 한대씩 지나가게 되어먹는데다가 여러차례 폭격을 겪는통에 더 좁아져서 차 한대마저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형편이였다.

육중한 대포를 끄는 포차, 탄약차, 포탄차, 무선차, 위생차, 고등어를 실은듯 찻찻한 냄새를 풍기는 후방차, 로획한 스리코타에다 기통수들의 모터찌쿨까지 합쳐 근 이삼십대의 차들이 제각기 체목청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길을 내라고 야단이였다. 불

도 마음대로 키지 못하는 좁은 다리목에서 저마다 길이 바쁘다고 신경질적으로 껍껍 소리치며 다툼질이었다.

《순서대로 서시오. 왜 새치기하는가.》

이쪽에서 끼운다고 몰아내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왜 바닥바닥 들어오는가고 소리질렀다.

《여! 고망어차! 비키라구 냄새 풍기지 말구.》

《뭐야?》

《완충이 내 꿈무늬 바짝 몰라, 다른 차가 끼운다.》

《후진, 후진이야.》

《넌장 외통길에서 어딜 물려서라는거야.》

조급성에 서둘러대는 운전수들은 어느 누구도 만만치 않았다.

머리를 땡하게 하는 이 혼잡을 교통정리원처녀가 바로잡아놓느라고 무진애를 쓰고있었다.

《07호 좀 비켜세우시오. 도착한 순서대로 건너보내겠습니다. 41호 후진하세요.》

교통정리원처녀는 자동차들의 발동소리와 경적소리, 운전수들의 웨침소리, 자갈이 바퀴에 튕겨나는 소리 등 별의별 소음을 저혼자 목소리로 다 누르려는듯 쟁쟁한 소리로 웨쳐댔다.

중발에 여름군모를 꼭 눌러쓰고 한줄배기견장을 단 날씬한 처녀, 목다리 긴 장화를 신고 기관단총을 둘러멘 이제 한 스무살 났을 나 어린 처녀의 위엄있는 호각소리와 기발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차들은 어쩔수 없이 한줄로 늘어섰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차체가 온통 기총탄구멍투성이인 화물차 한대가 앞으로 비집고 나와 정차신호주를 에돌더니 《달래강다리》라고 쓴 세멘트기둥앞에서 빼익- 하고 땅을 긁으며 떴어섰다. 적재함뒤에 87이라는 번호가 보였다.

《셋! 서요.》

처녀의 다급하고도 야무진 목소리와 함께 호르륵하는 호각소리가 련달아 울리었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처녀는 달려가자바람에 운전칸문을 열어제꼈다.

《동무 정차신호 못봐요? 사고치면 어쩌려구 그래요? 뒤로 물러서세요.》

운전칸에서 나온 운전수는 아주 유순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87호운전수는 증명서를 꺼내며 사정했다.

처녀는 증명서를 잡아채듯 받아쥐자

《차는 저 아래다 순서대로 세워놓고 초소로 오세요.》

하고는 발길을 돌려 초소쪽으로 내려갔다. 어쩔새 없이 증명서를 빼앗긴 운전수는 잠시 뻥해서 서있더니

《아 동무 동무》 하며 처녀를 따라 초소로 내려갔다.

등화관제를 한 반토굴의 초소문이 열렸다 닫혔다.

분임은 마음이 조여났다. 사정은 고사하고 말조차 비쳐볼것 같지 못했다. 그러나 다리를 꼭 건너야 했다. 분임은 반토굴초소로 다가가 문앞에 섰다.

길옆에 뒤편되게 흙을 덮은 반토굴의 한켠에는 감시소가 있었다.

감시소에 달려 지은 반토굴은 창문도 없이 외통문이 나있었다.

그안에서는 서로 제말을 들어달라고 보채는듯 웅성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분임은 마음을 다잡고 문을 당겼다. 카바이드 등잔이 파르스름한 빛을 뿜고있었다. 방안에는 운전수들과 호송병들로 가득차 있었다.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분임은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다.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문소리가 나고도 아무 기척이 없자 자연히 뒤를 돌아들보았다. 분임은 쑥스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미안하지만...》

《어서 들어서세요, 불빛이 나가요.》

처녀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무엇인가 그냥 쓰기만 하면서 말했다.

분임은 수집음을 타면서 초소안에 들어섰다.

하얀 옥양목상침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아련한 여자가 들어선것으로 해서 반토굴안은 삽시에 조용해졌다.

다소곳이 숙인 동그스름하고 말쑥한 얼굴, 발기우리한 귀밑, 흘러내린 머리칼, 수집은듯 내리뜬 까풀진 눈, 솜포단에 아이를 싸서 업고 무명띠개로 졸라맨 허리, 등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 봉긋한 앞가슴... 녀인은 무척 피로해보였다.

처녀를 둘러싸고 서있던 군인들은 분임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분임이는 눈돌바를 몰라 문간에 서 머뭇거렸다.

《얘기를 하슈, 이 처녀가 여기 대장이웨다.》

나이든 중사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분임은 그제야 처녀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냐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다릴 건너려구요.》

분임은 군대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것이 무등부끄러워 귀밀이 더욱 붉어졌다.

《안됩니다. 군대차들부터 건네야 돼요.》

처녀는 단마디에, 그것도 쌀쌀한 찬바람이 이는 것 같은 어조로 깨곳이 잘라버렸다. 분임은 두말 더 못하고 문열에 우두커니 기대여섰다.

교통정리원처녀가 밖으로 나가자 87호운전수도 입이 쓰거웠던지 갈노전을 깬 구들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주머닌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가시우?》

87호운전수는 교통정리원에 대한 반발도 있는 속심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고 분임의 일이 참 안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물었다.

분임은 인차 대답을 안하고있다가

《…현동으로 가요.》 하고 입을 다물었다. 한밤중에 현동까지 가야 한다는 말에 87호운전수는 물론 방안에 있던 모든 운전수들이 다 놀라는 기색이었다. 늘 타고만 다니는데 습관된 그들에게 있어서 밤길을 30리나 걷는다는것은 무척 아픈 일로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처녀가 다시 들어왔다. 낮 모르는 너인에게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주머니, 운전수동무들이 애를 먹어서 속상하던차에 그만 말이 끊지않게 나갔어요. 량해하세요.》

분임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다시 처녀에게 다가서서 신경질은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 강만 건너게 해달라고 했다.

《…오늘중으로 현동에 꼭 가야 해요.》

《아니 이 밤중에 현동까지요?》

처녀는 놀라운듯 까만 눈을 동그랗게 뻗었다.

《네…》

분임은 엷은 아이를 추어올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저… 이 애 사진을 찍으려구요. 오늘밤에 갔다가 래일 첫차레로 짝구 돌아오려구 그래요. 난 온 하루동안 발일을 놓구 다녀요.》

분임은 누가 막기나 하는것처럼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들썩하게 웃음이 터졌다.

《사진이요? 헛헛헛, 아주머니 저게 뭔지 아시우? 포타니요 포탄! 헛헛헛.》

얼굴이 기름하고 코밀에 꺼멥게 수염발이 돋은 포탄차운전수는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너머를 손짓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듯 껄껄 웃었다.

《아니 아주머닌 정말 사진을 찍으러 간단말이요?》

어느 차의 호송병인듯한 하사가 다시 물었다.

분임은 얼굴을 더욱 쳐들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분임이가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할때 혹시 부상병의 약을 가지고 가거나 하다못해 전선에 보낼 위문품수집이라든가 어쨌든 무슨 전쟁과 관련된 일때문에 다리를 먼저 건너달라고 하는줄 알았었다. 그런데 왕청같이 사진을 찍겠다고 술한 차들보다 먼저 건너가게 해달라는것이 아닌가…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에게 조국이 결단나는 판인데 사진이 다 뭐가! 평화롭던 생활을 상기시키는 모든 흔적을 의식적으로 없애버리고 오직 전쟁과 복수만을 생각하는 준엄한 시기가 아닌가.

교통정리원처녀도 이에 동감인듯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아주머닌 정말 한가한 생각을 했구만요. 보세요. 자동차들이 여기만 몰켜있는게 아니구 강 건너편에두 이만큼 있어요. 아주머니때문에 바쁜 차들을 세워둬야 하겠나요? 래일아침 일찌기 가세요.》

그리고나서 처녀는 다시 나가버렸다.

분임은 속이 바질바질 났다. 하루밤을 더 보내라는데 이 밤에라도 현동사진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야단이였다.

이때 사진찍으러 간다니까 껄껄 웃던 포탄차운전수는 카바이드등잔의 채를 터느라고 가스등을 잠깐 켰다.

그러자 창문으로 흘러드는 희미한 달빛에 우두커니 문가에 서있는 분임의 축 늘어진 어깨에 업혀있

는 아이의 룬딱이 하나의 선을 따라 뿌영게 드러나 보였다. 그것은 분임의 모습을 무척 처량해보이게 했다.

잠시후 방안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후방차운전수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분임이앞에 내놓아주었다.

《사진찍자고 고생하기보다 뜨끈뜨끈한 아래목의 구들장신세가 더 나을걸 그랬수다.》

화로주위에 둘러서는 군인들이 걸찍한 말을 또 꺼내려고 하였다.

《자 따끈한 물이나 좀 마시우.》

아까 꺾꺾 웃던 포탄차운전수가 더운 물이 담긴 군용밥통의 뚜껑을 분임에게 내밀었다. 저녁을 설쳐서 속이 비였던 분임은 부끄러웠으나 물그릇을 받아들고 한쪽벽에 돌아앉아서 한모금 마시었다.

사랑가루를 풀어서 달콤하고 따끈한 물은 온몸에 푸근히 퍼지었다.

남정네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돌아앉아 물을 마시는 분임을 보던 87호운전수의 가슴속에는 마음이 무뎠던 안해의 어진 모습이 슬며시 떠올랐다.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앞에서 물을 마시는것도 부끄러워 언제나 돌아앉아서 조용히 마시던 안해와 지금쯤은 벌렁벌렁 기여다닐 딸애의 모습이 안겨왔던것이다.

《좌우간 아주머니 이 전쟁통에 사진을 찍으려 다니는걸 보니 켜찮수다. 아무리 전쟁때라두 애들 사진이야 제때에 찍어야지... 넌장 우리 집 네편네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포탄차운전수는 통명스럽게 내쏘았다.

《원 별 걱정을 다한다. 사진같은거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싫도록 찍어도 될텐데 뭘그래.》

87호운전수는 그의 말은 들은척도 않고 화로에서 불티를 하나 집어내어 담배불을 붙이였다. 아마도 포탄차운전수는 총각인 모양이다. 그는 아이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애착을 모르는지 아니면 전쟁통에 다 잊어버렸는지 안중에도 없는것 같았다.

《저... 그런게 아니라... 사진을 꼭 찍어야 할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분임이가 이렇게 말하자 병사들은 더더욱 의아해졌다.

《사연이요?》

《.....》

《무슨 각근한 사연이 있길래 그러시우?》

전쟁통에 사진을 찍으려 밤길 수십리도 마다않는 이 녀인에게 소중한 사연이 있다니 자연히 주의가 돌려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분임은 이야기를 꺼내기 더욱 거북해졌다. 분임은 공연히 저고리앞설킨 두손으로 잡아당겨 꼭 여미고는 흘러내린 앞머리카락을 귀밑으로 걸어올린 다음 병사들의 눈길을 피하듯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그의 얼굴은 홍시처럼 익어 있었다.

《저... 사실은...》

분임이 겨우 이렇게 시작을 뻗으나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 이거 속시원하게 얘길 하시구려.》

젊은 하사운전수가 또 재촉했다. 분임이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하면 할수록 운전수들의 호기심은 더 커갔다. 한둘도 아니고 여러명이 이야기를 기다리는바람에 분임은 부득이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저... 사실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 애 사진을 찍어 전선에 보냈으면 좋겠다구 하셔서...》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분임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87호운전수가 눈을 화등잔처럼 크게 뜨며 다그쳐 물었다.

입에 물었던 담배를 비벼끄며 화로를 넘어설듯이 다가앉는 후방차운전수, 다른 사람의 어깨짚을 비집다가 벌떡 일어서는 호송병하사도 그리고 수염이 검스레한 포탄차운전수도 바싹바싹 죄어들어 귀를 기울였다.

방안의 분위기는 삽시에 달라졌다.

엄숙하고 정중한 공기가 차넘치였다.

분임은 말을 이었다.

《네... **김일성** 장군님께서...》

《아니 그럼 아주머니가 최고사령관동지를 직접 만나보였던말이요?》

이번에는 포탄차운전수가 믿어지지 않는듯 다우쳐물었다.

《네-》

《언제요?!》

《그제아침에 발에서...》

《아니, 발에서요?!》

이번에는 언제 들어와있었던지 처녀교통정리원이 분임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최고사령관동지를 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운전수들도 이구동성으로 분임에게 요청을 했다. 절절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들은 분임의 가슴속에 감격에 넘쳐던 그제아침을 되살려주었다.

…발갈이철이 다가오자 분임은 궁리끝에 현우를 옆집 포순이 할머니에게 맡기고 남편이 하던대로 보습을 지고 누령이와 함께 밭으로 나왔다.

땅을 제손으로 갈아보자는것이였다. 겨우 멍에를 메우고 밭에다 보습을 댔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눈에는 것처럼 익은 일이 손에는 어찌나 설었던지 땀과 눈물을 함께 씻으며 겨우 몇이랑에 보습자리를 냈다.

소도 서툰 보잡이군을 알아보는지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보탑도 제마음대로 놀아났다.

엇나가는 보습을 겨우 바로세워놓으면 이번에는 소가 멋어선다. 소를 때려물면 왈각 나가는통에 땅에 박혔던 보습은 허공 들리워 땅 걸면만 활고 지나갔다. 애가 탔다. 그러나 갈아야 했다. 갈고 씨를 뿌려야 전선에서 싸우는 남편에게 식량을 보낼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사흘을 애쓴 보람이 있어 어제 부터는 제법 이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늘 분임은 닭이 첫해를 치기전에 현우를 업고 소달구지에 쟁기를 싣고 밭으로 나왔다. 낮에는 썩새기 성화가 시끄럽고 초저녁엔 달이 없어서 흰해오는 새벽에 일자리를 내자고 나왔던것이다. 그는 포순이 할머니에게 현우를 계속 맡기기도 미안하지만 어쩐지 오늘은 데리고 나오고싶어서 밭머리의 느티나무가지에 요람처럼 그네를 매달고 그안에 잠든 아들을 눕혀놓고나서 소에다 보습을 메웠다.

차츰 날이 밝아오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밭이 여기저기에 다문다문 내다놓은 두엄더미에서도 흰김이 서렸다.

안개는 작년에 가을한 강녕이밑그루가 뻘죽뻘죽 내민 이랑사이에 누워있더니 차츰 움직이기 시작하여 밭지경을 활으며 산으로 올라갔다. 산기슭을 끼

고 읍쪽으로 뻗은 신작로가 넓게 지나갔다. 이 신작로는 전선으로 통한 길이어서 초저녁과 새벽 해뜨기전까지는 군수물자를 실은 자동차들이 그칠새 없이 오갔다. 다만 한낮에 항공이 위험한 몇시간동안만 뜸해질뿐이였다. 그 신작로를 내려서면 멀리 보이는 골짜기까지 밭이 펼쳐져있다. 동녘이 흰해지자 먼지를 말아올리며 오가던 자동차들이 뜸해졌다.

분임은 숨저고리를 벗어놓고 치마폭을 포개여 노끈을 질끈 동이고 머리수건을 고쳐쓴 다음 보탑을 잡고 채찍을 휘둘렀다.

《이라-》

분임이는 보탑에 매달려 끌려가듯 허둥허둥 걸음을 옮기며 갈아나갔다. 자칫하면 넘어질것 같았다.

《이라- 마라... 도치.》

밭머리에 이르면 안간힘을 써서 누령이를 돌려세우군했다. 누령이도 서툰재기에 물리어 힘에 겨운지 목을 저으며 씩씩거렸다. 그때마다 소방울이 절랑절랑 요란하게 울렸다.

흙이 뒤번져져 이랑이 생기는것을 돌아보는 분임은 더욱 기운을 내었다...

이윽고 그 밭을 다 갈아엎은 분임은 소도 잠시 쉬울겸 잠든 아들을 한번 보려고 느티나무아래로 소를 돌려세웠다.

이때 산기슭의 신작로를 에돌아 승용차가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분임은 이 길로 많이 지나다니는 군대차이겠거니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소앞에다 여물가마니를 해쳐놓았다. 소는 방울을 절랑거리며 여물을 맛있게 씹기 시작했다. 여물 먹는 소를 바라보던 분임이가 느티나무쪽으로 돌아서는데 승용차는 방금 갈아놓은 밭머리에 이르러 멎어서는것이였다.

차에서 건장하신분이 내리시더니 갈아놓은 밭을 바라보고계시다가 밭이랑을 무너뜨릴가봐 저어하는듯 조심히 골라디디시며 다가오시였다.

《수고합니다!》

다가오시는분이 은근하고도 자애에 넘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분임은 손에 묻은 콩깍지를 털어내며 자세히 바라보았다. 순간 분임은 너무도 깜짝 놀라 못박힌듯 굳어지고말았다. 그렇게도 흠모하며 한번만이라도 꼭 뵈고싶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다가오시는것이 아닌가!

분임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다가오시자 이 행복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을 울렸다.

분임은 북받치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장군님!》 하고 머리수건을 열른 벗어쥐고 깊이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분임의 쿵각지가 그대로 묻어있는 손을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노끈으로 질끈 동인 허리에 채찍을 찌른 분임의 모습과 아낙네의 손으로 서툴게 메운 멍에며 새김질하는 누렁황소, 그리고 방금 갈아엎어서 문문 김이 피여오르는 밭이랑을 대견하신 눈길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발을 잘 갈았습니다.》

분임은 서툰 솜씨가 확연히 알리는 밭이랑을 보여드린것이 너무도 부끄러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다. 그는 손에 든 머리수건을 꼬기꼬기 쥐고 머리를 숙인채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느꼈다.

《솜씨가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보타를 잡았습니까?》

《이제 나홀썸됩니다. 저... 군대에...》

《주인이 군대에 나갔단말이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동글모자의 채양을 약간 들어올리신 다음 두손으로 뒤통을 지시고 미소어린 눈길로 분임을 바라보시였다.

《언제 입대했습니까?》

《작년봄에...》

《집이 어디입니까?》

《저기 바라보이는 송평리마을입니다.》

분임이가 신작로 저쪽의 안개속에 묻힌 산밑을 가리키자 장군님께서서는 알릴듯말듯하게 모여앉은 작은 마을집들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마을에 후방가족이 많습니까?》

《예, 여라문집이 됩니다.》

분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을 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인가 한참동안을 생각하시다가 자애에 넘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래 편지는 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분임이앞으로 약간 허리를 굽히시고 물으시였다.

《두달전에 한번 왔습니다.》

《두달전에?》

장군님께서서는 분임이의 말을 들으시고 안개밭이 피여오르는 먼산을 바라보시며 무엇인가 계산해보시는것 같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두달전에 편지가 왔으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여물을 찢고있는 누렁이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장군님의 신발에는 흙이 많이 묻어있었다. 분임은 장군님께서 어딘가 먼 려로의 피로도 마다않으시고 여기에 들리셨음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장군님을 편안히 모시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걸려 무척 죄스러웠다.

여물을 먹던 누렁이도 그 무엇을 느끼는지 통방울같은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가만히 서있다가 꼬리를 휘휘 저었다. 두귀를 바짝 세우고 목을 돌릴 때마다 매달린 통방울이 절랑절랑 울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소의 목에 멍에 메운것을 보시자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전에도 더러 이런 일을 해봤습니까?》

분임은 고개를 숙였다. 해놓은 일들이 서툴러서 부끄러웠던것이다.

《처음입니다...》

분임은 지금 자기가 제대로 대답을 올리고있는지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만큼 그는 송구스러웠다.

《처음 해보는 솜씨하고는 괜찮습니다. 멍에도 그만하면 잘 메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다정히 웃으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쟁이라는 그 엄혹한 기분은 조금도 없으시고 그저 한 농민의 가정에서처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말씀하시였다.

《목줄은 바짝 매고 보습은 힘주어 누르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몸소 멍에를 푸시며 부족한 점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는 장군님앞에서 분임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분임은 수건을 허리띠에 끼운 다음 소코뚜레를 잡고 목에 메운 바줄을 풀었다.

남편이 있을 때 소도 메워보고 발갈이도 째째이 익혀두었더라면 지금처럼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황소치고는 순하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웃으시였다.

분임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멩예를 다시 메웠다.

장군님께서서는 분임이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더니 만족하신틈 돌아서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여 갈아놓은 밭의 흙 한줌을 쥐여 두손으로 비벼 보시면서 분임에게 말씀하시였다.

《참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땅을 묵여 서야 되겠습니까? 남정들이 없어서 올해농사가 힘들것입니다. 나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시인것 만큼 남자들을 대신해서 녀성들이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렸습니다.

우리 녀성들이 보탑을 잡은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농사에 대하여 심려하고계시였다는것을 분임은 느꼈다. 준엄한 전장을 시찰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바쁘신 길에도 농사일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한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분임은 몸둘바를 몰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군인동무들은 우리 후방 가족들이 이렇게 일하고있다는것을 알면 대단히 기뻐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분임의 이름이며 가정형편을 일일이 물어주시였다.

《마을 녀맹일을 맡아본단말이지요.… 음, 일이 힘들지 않다니 좋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시여 밝게 웃으시면서 천천히 몇걸음 옮기시다가 다시 남편의 이름과 우편대호까지 알아보시였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다른 녀성들이 다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소겨리반 같은것을 무을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에서도 우리 후방 가족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서야 합니다.》

분임이는 모든 녀성들이 다같이 함께 일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후방가족들에게 이처럼 크나큰 믿음을 주시는데 그에 조금도 보답해드리지 못한 자책감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일이란 함께 해야 흥도 나고 일자리도 폭폭 나는 법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에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녀성들이 밭일을 맡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리고 로력과 축력이 부족한 이때 소겨리반 같은것을 무어야 로력도 축력도 합리적으로 쓸수 있고 그래야 합심이 되여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겨리반은 어떻게 꾸리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세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그때였다.

느티나무밑 요람안에서 자고있던 현우가 깨어나면서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분임은 반사적으로 아들에쪽으로 몸을 돌이키다가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장군님앞에서 애를 안고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놀라신틈 분임을 보시였다.

《어린애가 아니오?》

《네.》

분임은 당황하여 겨우 입속으로 대답을 올렸을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이가 우는 요람으로 걸어가시였다. 분임은 어쩔지 몰라 손톱끝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으며 그대로 서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요람안에서 아이를 안아내시였다. 아이는 울음을 툇 그쳤다.

분임은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아이를 받아안으려고 장군님께로 달려갔다.

《봐두시오. 허, 잘생겼는걸.》

장군님의 품에 안긴 현우는 어머니에게 갈 생각도 않고 그대로 안기여 방글방글 웃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포동포동 살이 오른 귀여운 아이를 안으시고 만시름을 잊으신듯 호탕하게 웃으시는것이였다.

《허 이녀석이 낮가림을 안하는구나…》

장군님께서서는 현우를 머리위로 높이 추켜올리셨다가 내리우시더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였다.

《저… 장군님… 저.》

장군님께서서는 분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계셨다.

《괜찮습니다. 전선에 있는 금석동무가 아들을 얼마나 보고싶어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여 현우의 코를 닦아주시였다. 장군

님께서는 지금 현우를 안고 아버지를 보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볼 그날을 생각하는 아버지들의 심정을 마음깊이 헤아리시고 계셨다.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긴 현우는 좋아라고 그냥 캐득거렸다. 뿐만아니라 장군님의 군복에 얼굴을 묻고 비벼대기까지 하였다.

분임은 입술이 바작바작 탔다. 아기가 장군님의 군복을 어지럽히면 어쩌랴!

그는 현우를 받아안아야 할지 놔둬야 할지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장군님께서는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아기를 다시 한번 하늘높이 번쩍 안아올리시었다.

《이녀석 이발이 다 나구… 돌이 지났습니까?》

《네… 닻새전에 지나갔습니다.》

분임은 북받치는 감격을 안고 고개를 숙인채 말쑤드렸다.

《애의 이름이 뭘니까?》

《리…현읍니다.》

《현우! 이름이 좋구만, 금석동문 이 애가 태어나기전에 입대했었는데 전선에 사진이라도 보냈습니까?》

《?!》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물음이었었다.

분임은 당황했다. 남편에게 편지를 때마다 아이가 얼마나 컸다고 써보내긴 했지만 사진같은것은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저… 인제 찍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힘들겠는데 어디에 사진관이 있습니까?》

《읍에 사진관이 있습니다.》

《사진을 꼭 보내시오. 이번에 전선에 나가서 한 전사의 복수기록장을 보았는데 그 갈피속에 사진이 한장 있었습시다. 무슨 사진인가고 물었더니 그것이 그 전사의 가족사진이라는것이였습니다. 그 전사는 가끔 가족사진을 꺼내본다고 했습니다. 전선에서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가족사진이 품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족사진을 꺼내보면 더 용감해진다고 그 군인동무가 나에게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동무에게 그것이 숭고한 애국심이다. 고향과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전사는 용감하게 싸울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분임동무도 현우의 사진을 한장 잘 찍어서 전선에 보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띄우시면서 아이를 분임에게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분임동무, 너맹에서 소거리반을 무어 농사를 잘 지어보시오. 그리고 전선에 있는 금석동무한테 편지를 자주 쓰시오. 자 그럼 수고하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현우의 작은 손을 쥐어흔드시고는 분임이가 갈아놓은 밭을 몇번이고 돌아보시면서 만족하신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큰길로 나가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 타신 자동차는 발머리를 떠났다. 분임은 서둘러 큰길에 나갔다. 그는 간밤도 지새우시며 멀고먼 전선길을 다녀오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깊이 고개숙여 절을 하였다.

《장군님 발걸이는 넘려마십시오. 남편이 있을 때 못지않게 올해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가시는 길 맞은산에서 아침해가 동실 솟아올랐다. 따사로운 해발이 부채살처럼 퍼지였다. 분임은 두줄기 자동차바퀴자리를 따라 멀리멀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분임의 이야기가 끝나자 숨을 죽이고 듣던 사람들은 모두 긴숨을 내쉬었다. 가슴들이 뻐근해왔다.

때마침 잠들었던 현우가 깨었다. 아이도 온종일 등에 업혀다니다니 다리 아픈 모양이었다.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려던 87호운전수는 현우가 깨어나자 반갑게 소리쳤다.

《자 한번 안아보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너를 안아주셨다지!》

그는 현우를 꼭 껴안고 자기의 뺨에 얼굴을 비벼댔다.

장군님께서 자기 아이를 안아주셨던것처럼 기뻐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현우의 잔등을 한참이나 두들겨주다가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다음 병사에게 넘겨주었다. 그 병사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또 다음 병사에게 안겨주었다. 그 다음 또 다른 병사에게… 이번에는 포란차운전수가 현우를 받아안았다.

포탄차운전수는 현우를 머리위로 추슬리면서 < 얼릴러... 이 복둥이야 네가 정말 행복둥이구나... 우루루...> 하면서 제법 아이와 놀았다.

《와핫핫하...》

초소안에는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지금 전쟁이라는것을 가뭇 잊고 행복스럽게 웃으며 떠들었다.

87호운전수는 교통정리원처녀에게 돌아섰다.

《동무, 이 아주머니를 내 차에 태워 현동사진관 앞까지 데려다줘야겠수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운전수들이 저마다 들고일어났다.

《내 차엔 안장에 모포를 깔았어요.》

《그까짓 모포? 앞유리가 깨진건 어떻게 하구 그래?》

《내 차에 타자구요, 그래도 승용차에 타고가야지요.》

그처럼 매정해보이던 교통정리원까지 마음이 움직여 분임을 제일 선참으로 건네주자고 말했다. 모두 찬성했다.

운전수들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이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은듯한 흥분에 가슴들먹이었고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

같은 소대의 병사가 편지를 받으면 그것이 곧 소대 전체의 기쁨으로 되는 전선풍습에 습관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 금석이는 비록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 중대 전우로 느껴졌고 분임은 자기 중대 가족같이 생각되였다.

흥분된 가운데 교통정리원처녀가 분임에게 물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른 말씀은 또 없으셨나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싶은 마음에서였다.

《후방에서 전선에 보내는 편지들이 빨리 가닿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분임은 운전수들의 환호성때문에 미처 생각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족사진을 가지고있는 동무에게 전선에서 편지는 자주 받느냐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그 군대동무는 후방에서 오는 편지가 오래 걸리기때문에 아직 다음 편지를 못받았다고 말씀올렸답

니다.》

분임은 장군님께서 전선에서는 후방소식을 몹시 기다리고있으니 편지를 자주 하라고 하시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분임동무, 그 전사는 사진을 꺼내보며 고향과 가족들을 그려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고향과 가족과 조국을 느끼고있었습니다. 우리 용사들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꼭 찍어보내시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고향과 마을, 집과 가족을 가슴에 품고 싸우게 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술렁이던 방안은 잠잠해졌다. 모두 송엄한 얼굴 표정을 짓고있었다.

우리 전사들이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싸우게 하자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운전수들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 추억에 잠기게 하였다. 제각기 두고온 고향마을, 부모처자, 친척친우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일하던 정다운 공장도 살진 들판도 갈매기 춤추는 바다가 백사장도 그려보리라.

87호운전수는 무사고주행에서 모범으로 우승기발을 탈 때 장내를 뒤흔드는 박수갈채속에서 꽃보라와 꽃테프에 휘감기던 그날 어진 안해가 자동차를 끌어만지며 눈물을 짓던 그 순간을 생각하리라. 승용차운전수는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사진을 찍으며 부끄러워하던 그날이 떠올랐을것이며 목단추를 헤쳐놓은 포 견인차운전수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끝내여 상장을 받아안고 돌아오던 로동자구의 노을비끼는 거리를 그려볼수도 있으리라.

그런가 하면 머슴으로 끌려갔던 총각이 대학시험준비를 서둘러 열밤을 하루처럼 지새우던 꿈많은 시절을 감회속에 그려볼수도 있으리라.

그들은 끝없이 깊어지는 전쟁전의 어제날을 더듬어 더더욱 감회가 깊어졌던것이다.

현우를 안고있던 포탄차운전수가 분임에게 애를 말기더니 벌떡 일어났다.

《자 다리도 다 고쳐저가는데 승용차를 맨앞에 끌어다놓으라구, 다른 차들은 비켜서야겠어.》

《그렇게 합시다.》

모두들 기분이 좋아서 서둘러 일어나 나가려는 때였다. 낯선 자동차가 와 밋는 소리가 들렸다. 밖

에서 몇마디 말소리가 나더니 이어 초소문이 열렸다.

대위의 견장을 단 군관이 초소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번질거렸다.

《수고합니다. 언제쯤이면 다리를 건널수 있겠습니까?》

대위는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물었다.

서둘러대던 운전수들과 호송병들이 대위와 교통정리원처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기다려야겠습니까.》

교통정리원처녀는 군관이라고 초소규정을 어گیر 하지 않았다.

대위도 할수 없는지 온돌우에 걸터앉더니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문질렀다.

잠시 정숙했던 초소안은 다시 술렁대기 시작했다.

《뭘하나? 승용차를 앞애다 끌어다놓으라구.》

성미급한 포탄차운전수가 나가려는데 이마에 땀을 문지르던 대위가 포탄차운전수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다리를 건느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아주신 이 아이를 먼저 건네보내자고 그러니다.》

《뭘라구요?》

대위는 깜짝 놀라듯 그제야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문쪽벽을 등지고 앉아있던 분임은 아이를 내려다보는지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대위는 분임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럼 아주머니가 운분임동무입니까?》

분임은 영문을 몰라 얼굴을 들어 대위를 마주보았다.

《네... 어떻게?》

《아이 이름은 리현우구요?》

《네...》

《반갑습니다...》

대위는 아주머니에게 군인식경례로 인사를 건넸다.

《이제야 만났구만요.》

분임은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어 더욱 어리둥절했다.

대위는 이제야 시름이 놓이는지 반갑게 웃으며 다가섰다.

《인민군신문사 기자입니다. 아주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송평리에서 군까지 짝 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현동으로 떠났다가에 지금 그리로 가던 길입니다.》 하고나서 기자는 자세를 바로하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주머니와 아이의 사진을 찍어 전선에 보내주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

분임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멍청히 서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초소안에 있던 운전수들과 호송병들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섰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안고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현지도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친히 인민군신문사에 전화를 거시여 송평리에 사는 운분임동무가 남편을 대신하여 보탑을 잡았다고 하시면서 전선신문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러시면서 <운분임동무의 아이가 있는데 돌사진도 못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사진찍기가 험치 않을겁니다. 그 동무의 남편은 아직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단에 있으니 인민군신문사에서 ○○○계선으로 가는 기자동무가 있으면 가는 길에 꼭 송평리에 들려서 사진을 찍어다 리금석동무에게 전해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기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안에서는

《야!-》 하고 환호가 울랐다.

《장군님!-》

분임은 얼굴을 싸쥐었다.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말도 못하고 흑흑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어깨가 세차게 들먹이였다. 이 고마움을 무엇이라고 할것인가. 그저 《장군님, 김일성장군님...》 하고 외울뿐이였다.

둘러섰던 군인들도 눈물이 글썽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피어올라 고개들을 숙였다.

《아주머니!》

눈물이 불을 따라 뜨겁게 흘러내리는것도 모르고 교통정리원처녀가 분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안겼다. 그리고 현우의 불을 그냥 끌어만졌다.

분임은 뜨거운 눈물을 그냥 흘렸다. 그는 이제서

야 장군님께서 지금은 사진을 찍제도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진관이며 자기 집주소며를 물으시던 일에 짐작이 갔다.

《장군님… 이렇게까지 넘려 안해주신들 사진 한 장 못찍겠습니까. 제가 공연한 말씀을 드려서… 바쁘신 장군님께…》

87호운전수는 눈시울이 벌개서 목멘 소리로 말했다.

《기자동지, 그럼 빨리 사진을 찍읍시다. 우리가 바로 ○○사단으로 갑니다.》

《글쎄 나도 찍었으면 좋겠는데 밤에야 어떻게 사진을 찍겠소.》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럼 달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별도리가 없습시다.》

초소막안은 맥이 탁 풀렸다. 떡심이 풀려 담배를 물려던 포탄차운전수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목소리로 웨쳤다.

《기자동지, 자동차를 동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예 전 조등을 켜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될수 있을것 같소. 해보지요.》

《알았습니다.》

우렁찬 대답소리와 거의 동시에 운전수들과 호송병들은 모두 밖으로 펼쳐나갔다.

바깥은 먹물을 풀어놓은듯 캄캄했다. 달빛도 퍼그나 기울어져서 거뭇거뭇한 자동차들의 행렬만이 희뵈히 분간되었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교통정리원처녀가 자동차를 지휘했다.

다리를 건느려고 대기하고있던 자동차들은 대행을 허물고 다리목공지로 움직였다.

《조심하세요. 07호, 우측으로!》

교통정리원처녀는 기발을 들어 우측을 가리킨다. 그리고는 뛰어가면서 <호르륵> 호각을 불며 소리쳤다.

《후방차 앞으로 나와요.》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땅을 구르며 울렸다. 어둠속에서 호각소리와 야무진 처녀의 목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렸다. 자동차들은 부르렁거리며 반원형으로 빙 둘러서고있었다.

《내 신호를 받고 행동해야겠어요.》

운전수들은 모두 자기 안해, 자기 가족이 사랑의 사진을 찍기라도 하는듯 그 사진이 자신에게 전해질것이기라도 하듯 자동차를 움직이고 위치를 바로잡느라고 흥성거렸다.

《아주머니, 이리로 나오세요.》

교통정리원처녀가 시키는대로 어둠을 배경으로 분임이가 아이를 안고 섰다.

분임은 들먹이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자꾸만 눈물이 솟구쳐어 손수건으로 연방 눈굽을 찍어내고있었다.

교통정리원처녀가 달려와 분임이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현우의 전신이 잘 보이도록 도와주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기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전투가방속에서 사진기를 꺼내었다.

교통정리원처녀가 어둠속에서 불쑥 솟아나듯 87호자동차의 발딛개우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원형으로 둘러선 차들을 빙 둘러본 다음 기발을 높이 쳐들었다.

《준빗-》 조금 시간을 준 다음 《호르륵-》 하고 호각을 불었다.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대의 자동차에서 일시에 불줄기가 쏟아져나왔다.

순간 주위는 대낮같이 밝아졌다. 흰 적삼에 검정 치마를 입고 서있는 분임이, 그의 가슴에 안겨있는 현우, 류달리 커보이는 분임이, 그것은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을 상징하여주는 거인처럼 위엄있게 보였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운전수들은 운전칸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행복한 눈물을 머금었다.

기자는 급히 렌즈의 초점을 맞추었다.

기자는 분임의 모습을 렌즈안에 더 잘 넣으려고 로출을 조절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섰다 하며 구도를 잡았다.

《자 찍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을 드십시오.》

그러나 분임은 얼굴을 돌수가 없었다. 자꾸 눈물이 쏟아져나와 참다못해 종시 흐느끼고야말았다.

들먹이는 분임을 보며 모여섰던 병사들은 누구나 다 가슴이 찡- 울려움을 어쩔수 없었다. 기자 역시

자꾸 눈앞이 흐리어 샤타를 누를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 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렇듯 작은 일까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어 그것이 승리를 앞당기는 거창한 힘이 되도록 이끌어주신다는 생각이 가슴을 쥐고흔들었다.

평범한 한 병사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것이 불에 타고 재더미로 된 이 땅에서 전쟁에 몰두하여 잊어버렸던 생활을 찾아주시고 그 생활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위대한 사랑에 목이 메었다.

기자는 길런 목소리로 분임을 불렀다.

《아주머니, 얼굴을 드십시오. 어서 얼굴을 드십시오.》

《…………》

분임은 손수건으로 눈곱을 찍어내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두눈에는 여전히 맑은 이슬이 피어있었다. 그것은 기장 고귀하고 가장 값높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행복으로 빛나는 눈물이었다.

기자는 바로 이 눈물을 그대로 살려내려고 애썼다. 광량도 충분했다. 그는 이 귀중한 한장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있는 정성과 기술을 깡그리 짜냈고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했던 흥분을 느끼며 샤타를 눌렀다.

세번 네번 찍고서도 마음에 안들어 일곱번이나 다시 찍었다.

기자는 렌즈안에 들어온 조각상같은 사진을 인민군신문에 기사와 함께 실어 감격적인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촬영이 순식간에 끝나자 불이 꺼졌다. 갑자기 어둠이 닥치니 한치알도 안보이게 캄캄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환하게 밝아있었다.

그럴 때 다리가 완성되었으니 어서 차들을 통파시키라는 련락이 왔다.

처녀교통정리원이 87호차의 발판에서 웨쳤다.

《동무들, 우리 기사동지의 차를 제일먼저 건네보내겠습니다.》

처녀의 웨침이 끝나기도전에 《좋습니다.》하는 대답이 밤하늘에 메아리쳐갔다.

이리하여 기사를 태운 차가 복구된 다리로 맨처

음 건너가게 되었다.

분임은 다리옆 세멘트기둥앞에 가섰다. 아까는 저마다 먼저 건너지겠다던 차들이 언제 그랬더니실게 정연하게 렬을 지었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거대한 행렬의 선두에 기자가 탄 자동차가 섰다. 분임은 현우의 손을 쥐고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기자도 분임에게 손을 쫓는다. 그뒤를 따라 달리는 차들의 운전수들과 호송병들이 모두 분임에게 손을 흔들었다. 87호운전수가 지나가면서 벌썬 웃는다.

《현우야 잘 있어라!》

그는 자기 집에 들렀다가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오래오래 손저어주었다. 그뒤를 따르는 포탄차운전수의 얼굴도 보인다. 그는 포탄이 아니라 행복한 고향소식을 신고가는 심정이다. 전쟁이라고 웨치던 하사도 높이 흔드는 분임이와 현우의 손을 잡아보려고 팔을 길게 내밀었다.

그들은 분임이를 잊지 않으려는듯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차를 몰아갔다. 뒤에서 교통정리원처녀의 호각소리가 연방 들렸다. 호각소리에 따라 위장한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오직 포탄, 돌격, 앞으로…만을 생각하던 가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족, 고향, 조국을 세롭게 간직 한 그들의 모습은 더더욱 억세보였다.

전선과 함께 후방에서 싸우는 조선의 녀성, 허리를 동이고 남자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나선 마을녀인들의 사랑스럽고 미더운 모습을 안고 끝없이 흘러가는 철의 대오는 원쑤들을 맞받아 전선으로 달리고있었다.

분임은 그들을 바라우면서 더욱 뜨겁게 손을 저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웨쳤다.

《현우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가지고 지금 기사동지가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덕에 보답할수 있겠나요. 내 말이 들리나요.…”》

그의 마음속웨침이 자동차행렬을 따라 멀리 전선의 하늘가로 울려가는듯하였다.

분임은 다시금 뜨거워오는 가슴에 현우를 꼭 껴안고 마지막 자동차가 희끄무레 밝아오는 지평선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다리목에서 오래오래 손저어주고있었다.

최부길

환희에 찬 이 아침에

대동강 건너편 하늘의 한쪽모서리가 휘뽀해지더니 차거워보이는 새벽빛을 물리치며 선명하고 아름다운 분홍빛 노을이 깃을 펴기 시작하였다.

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한 꽃나무들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4월의 경사로운 아침이었다.

강물위에 비낀 아름다운 노을, 맑고 깨끗한 아침의 대기.

나는 파사로운 이 봄날처럼 싱싱하게 피어난 꽃다발을 가슴에 소중히 안은 애들의 손목을 잡은채 만수대의 높은 계단을 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이 명절날아침,

만수대언덕은 벌써 날이 밝기전부터 사람들로 꽃물결을 이루었다.

명절차림을 하고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오르고 또 오른다. 나처럼 아이들의 손목을 잡은 저 행복의 웃음이 얼굴에서 떠날줄모르는 젊은 부부, 그리고 그 곁에서 걷고있는 머리에 서리가 내린 백발의 로인, 로동자와 농민들, 사무원들, 예술인들, 대학생과 소년단원들, 줄을 맞춘 유치원의 귀여운 어린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있었다.

나는 그들속에 섞여 금빛 해살이 어리기 시작한 만수대언덕위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놓았다.

이 언덕을 향하여 거리로 밀려나오는 사람들의 흐름은 끝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이 불타는 충성심이 그대로 발걸음이 되어 이 높은 계단을 오르고있는

사람들의 물결, 마치도 기슭을 향하여 밀려드는 흐름처럼 그 끝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인지 가늠할수 없었다.

이 얼마나 환희에 찬 아침인가. 이 얼마나 기쁨에 찬 행복의 꽃물결인가.

새옷들로 아름답게 단장한 저 어린이들과 학생들, 나는 손목을 잡고있는 우리 집 아이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 애들이 신고있는 신발로부터 넥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췌하다.

그것은 나의 애들뿐이 아니었다. 주위에서 걷고있는 저 어린이와 학생들모두가, 아니 온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새옷들을 떨쳐입고 그이께 첫 인사를 드리려고 거리로 나선 이 아침,

그들을 보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후터워졌다.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에 안겨 자라는 너무나 행복한 운명이 차려진 세대들이다.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땅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 이처럼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 사람들의 운명에 비친적이 있었던가.

인간이 암흑의 바다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며 정처없이 허우적거리고있을 때 금빛 찬란한 광명의 세계에로 그를 끌어올려주시고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물위에 뜬 지푸라기처럼, 길가에서 채우던 돌맹이처럼 버림받고 천대받고 짓밟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도로 찾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한없이 파사로운 사랑의 해발이 온 누리를 비쳐갈 때 이 땅우에서는 얼마나 큰 삶의 기적과 창조의 샘이 솟아올랐던가.

기적과 창조의 혁신으로 수놓아진 이 땅, 새로운
지상의 낙원으로 전변된 우리의 조국,

바로 그리하기에 이 땅우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포기의 풀이나 꽃을 볼 때에도 그것을 자래우고
꽃피우는것은 자연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발이라는것을 것처럼 가슴이 사무치게
느끼고있는것이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만수대언덕의 마지막계단을
올라섰다.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위대한 수령님
의 동상은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이
활짝 피어난듯 아름다운 꽃바다속에 솟아있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삼가 정중히 드린
수많은 꽃바구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 꽃
바구니들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 기관들과 인민군
부대들에서 그리고 대학과 병원, 농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여 정성껏 마련하여
보낸것들이었다.

이 가장 경사로운 아침에 승엄한 만수대의 언덕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오는 우리 전체 인민들의 뜨겁게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뭉쳐 아름답게 피어난
저 꽃바구니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사람들의 물결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나는 우리
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 해외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동포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불타는 뜨거운
마음이 달려와 언덕을 이룬 인민의 충성심의 언덕,
만수대의 승엄한 언덕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이 뜻깊은 명절의 첫인사를 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오직 한평생 인민의
념원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간고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시였으며 한시도 인민

을 잊지 않으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

이 말에는 얼마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고귀한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

오늘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적이 있었던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자기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이 땅우에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충성
심은 저 끝간데를 모를 푸른 하늘처럼 나날이 깊어
가기만 한다.

《위대한 수령님, 부디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처럼 절절한 한결같은 념원은 가장 경사롭고
환희에 찬 이 명절날 아침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에 불타는 뜨거운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꽃물결은 여전히
끝이 없었다. 그 흐름처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충성심에도 변함이 없다.

저 가없이 푸른 하늘처럼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오직 충성의
한길로 변함없이 달려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길이길이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의 마음인양 이 환희에 찬 아침
에 하늘은 저리도 푸른것인가.

나는 한없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다시금 우리러보았다.

함익승

조선아, 기다려다오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시여
천리 먼길을 떠나시자니
걸음걸음 돌아다보이시여
오래도록 고개마루에 서신 원수님

언제봐도 정다운 고향산천
떠나시자니... 못잇을 추억을 불러내는
마을과 동산 저 멀리
아버님과 함께 걸으시던
술술 푸른 만경봉
다시 한번 걷고싶은 그네터와 샘물터...

산천은 예대로 아름답건만
정녕 또다시 작별해야 하는가
인제 가면 언제 올지
돌아올날 기약할수 없으니
다시 만날 날은 그 언제일가

작별을 앞둔 어리신 마음에
그처럼 모든것이 더욱 소중하시여
젖어오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고향산천
동구길 멀리 움직일줄 모르시는
할아버님, 할머니
고향사람들...

아드님께서 떠나가시고

머느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는... 어리신 손자님마저
해방의 한길에 바래시는 조부모님

기약할수 없는 긴 세월
해방의 먼길을 떠나시는 원수님께
밤새 삼으신 두켄레 짚신을 드리시고
송구한 마음에 따라서고 따라서시는
할아버님, 할머니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시려
조용히 모자를 벗어드시니
아, 설레이며 달려오는
강이여, 산이여, 들이여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고향산천아, 사랑하는 조국아
이 땅에 다시 올날 기다려다오



눈보라 우는 천리길을 걸으시여
조국땅이 끝나는곳
저물어가는 나루가에 서신 원수님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조국강산-

천리 먼곳에 두고오신 고향산천
베보자기에 삶은 고구마를 싸들려주시며

오래도록 바래주시던 할아버님, 할머니

아, 눈에 삼삼 그리운 모습들

떠나서 살수 없는 정든 땅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것인가

나서 자란 고향산천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과연 다시 돌아올 날 언제일가

나루가에 저녁노을은 피는데

어리신 마음에도

금할수 없는 슬픔에

조용히 부르시는 《압록강의 노래》

조선아

조선아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아, 혈전의 긴긴 세월

넘고 헤치신 수십만리에

원수님 고향을 떠나시며 남기신 그 말씀

압록강을 건너지며

해방의 굳은 맹세 다지신 그 말씀

강도 일제를 무찌르는

백두의 장엄한 퇴성으로 울려했거니

항일의 20여성상

갖은 풍상 다 겪으신 원수님

조국강산에 행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불멸의 그 자욱

성스런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이 빛나라

력사에는 찬란한 금문자로!

땅우에는 은하천리로!

김석주

사랑으로 지새시는 조국의 밤에

날은 가고 또다시 깊어가는 밤

휘영청 달빛은 은은히 흘러내리고

차바퀴소리는 고르로이 울리는데

이 밤도 달리는 차중에서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

일을 보시며 지새우고계시여라

아, 바람부는 조국의 북방-

먼 현지지도의 일정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이 길이지건만

이 밤도 시간을 인민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

이따금 바라보시는 차창-

저기 불야성의 도시와 마을은

달리는 차창에 안기고

달빛이 부서지는 동해의 물결이

차창따라 끝없이 흐르는데

흔들리는 차창가에서도
수첩속에 적으신 그 많은 고장과 이름들에
다시 붉은 줄 쳐가시며
깊은 생각속에 잠기시는 어버이수령님

동해선따라 달리는 차중에선
바다가 농사일과 인민의 식탁을 두고
깊어지시는 그이의 심려 자정을 넘기시더니
양덕령을 넘어선 평원선 차중에선
산골마을 아이들의 신발모양과 색깔을 놓고
깊은 생각속에 새벽을 맞으시거니

오, 깊어가는 밤
조국의 밤은 진정
모든 사람에게 평온과 안식을 주려왔건만
어버이수령님께만은
잠시의 휴식도 못올린채
이대로 또다시 밝아야 하느냐

풍찬로숙하시던 백두의 우등불가에서
철이 튀는 포화속 전선길에서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며
엄혹한 시련을 몸소 헤쳐오신 수령님이시거니

밤이여, 밤이여
이 땅에 락원을 세워오신 건설의 날들에
인민이 올린 그 모든 간절한 소원 어디 두고
이대로 무심히 밝아야만 하느냐

-우리가 잠을 덜 자야
인민이 편안히 잘수 있소

아, 그 숭고한 사랑으로 지새우신 밤
저 하늘의 별보다 많으시건만
달리는 차창가에
꺼질줄 모르는 사랑의 등불을 밝히시고
이 밤도 행복을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수령님

기쁨에 따라서고 행복에 마주오며
풍요히 설레이는 황금의 들과
밤노을이 흐르는 공장지대를 정겨이 보시며
이 밤에 그이 지으시는 밝은 미소여

인민에게 사랑을 주시며
행복을 가꾸시는
그속에서 평생의 로고를 다 푸시며
그속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는 수령님
아, 위대한 수령님의 얼굴 밝아지시니
축복받은 명절날의 아침과도 같이
새날의 기쁨으로 밝아오는 조국산천이여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지켜선
따뜻한 요람에서
우리 인민은 잠을 깨는것이나
얼마나 크나큰 사랑 다 알지 못하며
우리 인민은 행복하게 살아가는것이나
하늘같은 사랑의 품에 안겨 밝아오는
조국의 새벽이여

김재원

가슴에 차오르는 간절한 생각이여

저 먼산 기슭에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만경봉에 올라
남산을 바라보는 마음
두눈에 더운 이슬이 고이여라
아, 김형직선생님의 영상을 우러러
깊어지는 생각 저 하늘가에 나래를 펴라

선생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남산초목도
봄빛속에 푸른 빛 피워올리고
새벽이슬 났으시며 혁명의 먼길 떠나실 때
오래오래 바라보시던 정든 고향집
만경대 초가집은 오늘도 변함이 없이
그날의 그 모습으로 서있어라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변함이 없이

아, 남산초목도 뜻이 있으면
나라 잃은 슬픔을 말해주리라
그처럼 불타는 소원을 새기시던 저 푸른 잎새우에
봄물은 오르고 행복은 향기되어 넘쳐나고...

만경봉기슭을 거닐며
푸른 이끼돋은 바위부리를 쓰다듬어보며
꽃향기에 목메이는 마음
한송이의 꽃을 보아도
해방된 조국의 이 봄날을 불러오시며
눈바람 세찬 혁명의 길을 헤쳐가신

선생님의 그 영상 어리여와라
하얗게 성에 불린 철창속에서도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인민의 삶을 생각하시며
차디찬 돌바닥도 얼어든 대지도
아지랑이 피어나는 들관처럼 밝고가신
선생님의 그 높으신 뜻
저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어려있어라

한생을 다 바치시여
이 땅에 내리는 눈서리를 다 막아내셨으니
한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땅우에서
지원의 높은 뜻으로
인민의 이 봄을 움틔우신 위대한 품이여

어버이수령님 가꾸시는
락원의 이 강산에
세월이 갈수록 뜨거이 안겨오는
선생님의 그 숭엄한 영상

아, 뜻이 있으면 말해주리라던
저 남산초목이
인민의 영원한 봄을 안고
시련에 찬 력사의 새벽길을 걸어가신
선생님의 그 뜻을 전해주고있어라
인민이 주인으로 삶을 누리는
주체의 락원에 흐르는 그 불멸의 뜻을...

박창화

어머님의 그 리별은...

타는듯 저녁노을
갈밭에 소리없이 내리고
하늘가 멀리
계절조의 무리 사라지는
소사하의 초가집
강반석어머님께서
먼 싸움의 길로 장군님을 배웅우고계시여라

앓고계시는 어머님
홀로 두신채
차마 발걸음 떼실수 없으시여
고삭은 울바자
아프신 마음으로 어루만지시며
마당가를 도시고 또 도시던 장군님.

불어오는 대륙풍에
결연히 옷자락을 날리시며
동만의 들길 넘어 아득히 사라져가시건만
어머님께선 조용히 문가에 서시여
오래오래 장군님의 모습을 지켜보시여라

아늑한 방에 모여사신 날보다
헤어져사신 날이 더 많으셨기에
가슴속에 간절한 그리움은
날을 따라 더더욱 쌓이고 쌓였건만
어찌하여 어머님께선
그리도 흔연히 장군님을 떠나보내시는것인가

봉화리, 중강진,
팔도구, 림강...
투쟁의 무수한 지점들을 옮기시며
오직 해방의 그날만을 믿으시여
리별의 아픔을 웃음속에 묻어오신 어머님

바람찬 새벽에 또 깊은 밤에
김형직선생님을 배웅우시던 그 길로

오늘은 장군님을 배웅하시나니
아, 어머님께선 진정 모르셨던가
그 길이 마지막 리별이 되실줄을...

깊으신 병환에 계시였어도
이토록 만나시자 다시 먼길로
장군님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어머님의 그 고귀하신 뜻이여!

떠나시는 장군님 따라
세상 끝이라도 가고싶으신 마음
어머님께선 보시였어라
천리만리 장군님 가시는 길에
철쇄를 끊어버리고 일어서는 조국을...
만경벌 이랑우에
해방의 봄씨앗을 뿌리며
기쁨에 겨워 웃는 고향의 모습을...

아, 하늘땅에 차넘치는 어머님 사랑
움트는 조국의 봄을 부르시며
자욱자욱 장군님 가시는 길에
백두의 장설을 다 녹여주시고
어둠던 이 나라 빛없는 강산에
인민의 태양을 받아들여올리셨나니

그 고귀한 사랑으로 빛나는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삶은 꽃피고
행복이 넘치는 이 강산

아, 장군님과 어머님
그날에 헤어지시여
다시 만나지 못하셨어도
어머님의 그 리별,
장군님과 인민의 영원한 상봉이 되어
인민은 수령님을 길이 모셔가는것이여라!

김덕선

사랑의 자욱

날알향기 목메이게 풍겨오는 들길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시여라
이삭들의 속삭임소리
처녀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마디마디 새기시며
나무리 넓은 벌을 바라보시여라

확 트인 벌
두루미때 나는 저 하늘 한끝까지
해살처럼 퍼져가는 사랑의 그 미소
농민들이 가꾼 풍년벌을 보고싶어 오셨다고
아버이수령님 흥치며 설레이는 들길을 걸으시여라

눈속의 두렁길에 사랑의 자욱 남기시고
비내리는 들길에 다시 그 자욱 새기시고
이해의 대풍을 몸소 가꾸어오셨건만
이삭들이 설레이는 이 가을날에
사랑을 안으시고 또다시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
그리도 기쁘시여
벼마다 한가운데 들어서시여라

텅길듯 여문 벼이삭을 뽑아드시고
한알 두알... 알수도 세여보시며
목메일듯 풍겨오는 난알의 향기속에서
모든 심려를 다 푸시는듯
처녀관리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여라
그가 기특하여, 한없이 대견하시여...

전정 동무가 이 벌을 가꿨단 말이지
아직 학생티를 벗지 않은 그 나이에
대지의 온도에 품고 다니며
찬바람을 막고 두엄을 실어내며
저 넓은 벌을 동무가 가꿨단 말이지

백리벌에

만풍년을 불러왔다고
주체농법, 만풍년의 그 봄빛을
작은 가슴에 안고사는 그 마음이 기특하시여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들바람에 끄는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일을 잘했다고,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했다고
거듭 치하의 말씀을 하여주시고도
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싶으신듯
해질녘 들길을 못내 떠나지 못하시여라

불수록 대견한 대지의 딸
행복의 눈물에 젖은
달같은 얼굴이 벌우에 피였는데
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수척한 그의 얼굴이 가슴아프시여
따뜻이 타일려주시여라

설레이는 저 나무리벌의 걱정처럼
사랑에 목이 메고 또 메여
가슴 들먹이는 처녀관리위원장
풍년의 기쁨속에 만풍년의 환희우에
사랑을 더하여 엮어주시는
태양의 그 빛발
영광은 들끝에 닿고
행복은 향기되어 넘쳐라

오곡의 설레임소리
오곡의 설레임소리
환희에 찬 만풍년의 속삭임속에서
그토록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새 인간이 탄생하는 소리를 새겨들으시며
아버이수령님
가장 큰 기쁨을 들길에 남기시여라

김복원

아,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공업열성자회의장에서-

젊은 시절의 나이를 되찾는 날입니다
3대혁명소조원을 보내주신 사랑의 말씀 받으며
해방과 민주개혁, 전쟁과 복구...
영광에 찬 력사의 나날을 그려봅니다

앞에 앉은 제철소의 지배인도
옆에 앉은 발전소 기사장도
그 빛나는 해들에 늘어난 혼장과 함께
목마우에 흔들던 꽃다발을 다시 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여
이 대회장에 터지는 박수갈채는
우리 나이든 일군들의 눈물에 젖은
가슴속깊이에서 울려온 목소립니다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왔고
피도 많이 흘렸다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말씀 새기며
삶에 끝이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오늘에 발을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버릴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공훈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삶의 불길을 우리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흘러간 세월처럼 오늘도 앞장에 서라고
우리옆에 혁명전위들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이렇듯 밝은 날이 또 있겠습니까

죽어도 한이 없을 오늘입니다
목이 메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릅니다

우리는 불꺼진 자리의 재도 아니고
바람에 흩어지는 락엽도 아닙니다

달밤에 구내길을 혼자 걸을 때면
함께 가는 그림자도 새로웠습니다
깨우쳐주는 목소리 우리옆에 있고
밀어주는 손길이 우리옆에 있습니다

낡은 세계의 마지막 흔적들을
사람의 머리속에서도 가셔내는 오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람과
진정 한몸이 되어 걸어갑니다

공장에 새라새론 기계들이 들어앉아도
눈에 설고 손에 선 일 있겠습니까
과학과 기술로 준비된 3대혁명소조원과
참말로 한몸이 되어 오늘을 삽니다

혁명의 전위들은 되찾은 우리의 젊음입니다
궁전같이 꾸리는 공장안처럼
공원같이 가꾸는 공장두리처럼
우리 마음의 주름살도 다 펴집니다

가슴 설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인류의 지상락원에 사는 우리 마음
오늘의 이 영원한 삶의 불길을 안고
달리며 날으며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립니다

백두의 밀림속을 헤가르던 붉은기에
혁명선렬들의 피가 불탄것 같이
그 숨결 이어 들고가는 세록의 기발도
우리의 다함없는 충성으로 빛내립니다!

오영환

위대한 아버지

새로 일떠선 제철기지우에
소리없이 밤눈은 내려쌓이고
깊으신 생각을 안으신채
아버이수령님께선
용광로 구내길을 바라보시여라

천리 먼 현지도의 피로도 잊으시고
제철소의 만년대계 펼쳐주시며
깊어가는 이 한밤도 잊으시더니
또다시 아버지수령님께선
한 신입당원의 문건을 손에 드신채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이 없으시여라

...야금기사 김광명

간고한 싸움의 날에
인미군병사들의 등에 업혀왔다는 그
락동강기슭의 불타던 버들숲이 고향으로 적혀있고
학원에서 달아준 이름이 본명으로 된 기사
아직 부모의 이름란에
이름 석자도 써넣지 못한채
빈 공란으로 남아있는 입당문건이
수령님 눈앞에 자꾸만 어리여서인가

푸실푸실... 창가에 흰눈은 쌓이고
수령님의 마음도 끝없이 달리시여라
아,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
스스럼없이 적을수 있는 이 란에
부모의 석자이름 적지 못하는
기사의 마음 얼마나 피로웠으랴

병사들의 불먼지 오른 잔등에 업히여
포화속 수천리길 걸어온 그날부터
어엿한 기사로 자라난 오늘까지
운명도 청춘도 희망도
당의 품에 맡기고
당을 어머니로 알고 자란 그가 아니었던가

눈송이 흩날리는 용광로구내
이 밤도 그 어느 창가에서 잠못들
기사의 그 모습 찾아내시려는듯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
돌아서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여라

-동무들,
이 동무는 교아가 아닙니다
이 동무의 부모는 우리 로동당입니다!...

순간, 이 땅의 모든 행복과 영광이
여기에 다 모여온듯
레사롭게 흐르던 이 한밤도
마치 이 시각을 위해 생겨난듯
승엄한 정적에 잠기는가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어제날엔 불비속에서 그를 안아내시여
학원과 대학의 창가에 세워주시고
들창가의 꽃들도 밝게 피워주시며
교아의 설음 가슴속에서 지워주시더니
오늘은 인간이 받을수 있는
가장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거니

어찌 이름없는 한 기사만이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하랴
어제날엔 마안산의 험벗은 교아들을
사랑의 모포자락에 감싸주시여
이국의 찬서리 다 막아주시였고
해방된 그날엔
수령님 고향땅에 혁명학원을 세우시여
천만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아키워주셨나니

아, 부모없는 아이들에겐 부모가 되여주시고
자식 잃은 부모에겐 그 설음 함께 나누시며
이 땅우에 사는, 이 지구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위대하신 아버지로

그 이름 빛나시는 **김일성** 동지!

그 이름 영원하실 **김일성** 동지!

그이는 정녕

수천년 하늘땅도 안아주지 못하던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시여라

위대한 태양이시여라

리정술

그날에 사는 마음

생각도 깊어지는 저녁에도

출근길에 오르는 아침에도

하루에 그 몇번

가슴은 문득 뜨거워지는가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실것만 같아

못견디게 울렁이는 우리의 마음

땅을 주시고 공장을 주시고

인간의 참된 삶과 권리를 주시고

안겨주신 모든것이 사랑인줄을

수령님 한평생을 바쳐가시며

인민에게 베푸시는 은혜인줄을

가슴에 새길수록 그리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가까이 뵈오며

수령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

어버이수령님께서

먼 북변 제철지구를 찾으시여도

서해기슭의 두령길을 걸으시여도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 오실것만 같아

그 마음들 간절한 그리움에 불타라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시면

그 마음은 행복의 이슬에 젖고

못잊을 사랑을 남기시고 떠나실 때면

다시 한번 더 모실 날을

그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으로 간직하여라

눈물이 겹도록 그리도 간절히

사람마다 깊은 속마음을 터놓고

어버이수령님 모실 날을

아이들은 손뼉아 짊어보고

어른들은 뜨거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마음에 일을 하고

그 마음에 생각도 깊어지는 이 강산

꽃들은 피고 백과는 주렁진다

다투어 솟구치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그 마음들 벌에 넘치여

만풍의 금나락은 하늘가에 물결치고

그 마음들 대건설의 노래로 울려퍼져

강줄기를 막으며 언제는 솟구치고

철골기둥들이 밀림처럼 솟아올라라

오셔서 주신 말씀 평생토록 지켜가며

기다리고 바라는 그날이 있어

그날에 높이 울릴 감격의 그 환호가

내내 가슴속에 차올라있어

락원의 창문들은 구름우에 웃고

철의 도시는 쇠물빛 노을을 피워올리고

아, 오늘의 하루하루는

충성의 년륜으로 이 땅우에 새겨지나니

세월은 가고 또 가고

수령님 모시였던 그 영광을 안고

수령님 모시꿈은 그 소원을 안고

해는 바뀌고 또 바뀌고...

행복이여

기쁨이여

어버이수령님 다시 모실 그날을

뜨거운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인민의 그 충성

이 땅에 오는 세월을

가장 뜨거운 충성으로 빛내여가고있어라

김진수

남녘은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저 하늘 밑, 북녘은 천리런가
그리움은 지척인듯 넘나고
마음 한번 가고 오면
언제나 뵈옵는듯 친근하신
아, 위대한 수령님!

삼각산 높은 봉인 백운대에 오르면
저 푸른 하늘가 자남산언덕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고
해저무는 동구길에 나서면
이 마음 비껴가는 황혼을 타고
어버이품을 찾아 북녘으로 날은다

서슬찬 미제의 총검으로도
독기서린 파쏘의 악형으로도
막을수 없고
꺾을수는 더욱 없는 이 마음
밤하늘의 은하수되어 굽이쳐가는
저 북녘은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실 사랑의 품

어버이 다함없는 은덕에 목매여
수령님 모셨던 영광의 자리마다
자애로우신 그 영상을
충성의 대석우에 동상으로 높이 모시여
북녘은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위대한 수령님 제고장에 모시고있건만

어찌하여 남녘의 우리 겨레
소리치면 메아리쳐오는 지척에 있고도
한 강토, 한 조상의 땅우에 있고도
갈라져 30여년 피타는 갈망을 안은채
어버이수령님 몸가까이 뵈옵지 못하는것인가

통일의 그날 그 아침에 모시자고
준엄한 싸움길에 나선 아들에게

가장 깊은곳에 소중히 모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넘겨주는
어머니의 절절한 념원을
남녘의 아들이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이 청춘 무엇을 위해 꽃핀다 하라

두메산촌 록읍길은 발머리에서
속삭이듯 가슴깊이 되새기듯
《김일성장군의 노래》 정을 담아 부르며
부풀어오르는 꿈들을 래일에 엿어보는
남녘녀인들의 순결한 마음을 담아

철창속에 갇힌 혁명의 동지들이
피흐르는 손끝으로 담벽에 새겨가는
위대한 수령님 만세의 글발을 담아
통일의 새아침을 이 강산에 안아오리라
결사의 맹세로 내딛는 걸음-
천리로 멀고 천만리로 길이 아득한들
기어코 가닿을 우리들이 아니냐

마주치는 눈빛들이
맹세로 불꽃튀고
분노한 주먹으로
땅을 치며 일떠서니
천지가 진동하고
암흑을 들부시며 남해가 노호한다

아, 남녘은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혁명의 신념으로 담고 다듬은
깨끗한 마음속 충성의 대석우에
위대한 수령님 영상을 모셨길래
원췌의 칼부림에 맞서 피흘리면서도
조국의 한피줄로 교동치는 천리강토!

수수천만의 정의로운 심장들이
저 북녘에 잇닿아

이 강산 어디에나
그 어데를 가나
온 삼천리는 수령님 모신 한마음-
싸우는 남녘의 우리

삼가 몸가까이 뵈옵는듯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여라

조빈

어머니 차려입은 치마저고리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꽃무늬
조국산천의 백도라지 고운 꽃무늬

백도라지꽃무늬의 치마저고리
내 어머니 차려입었나이다
초록색비단의 치마저고리
내 어머니 차려입고 가나이다

지난해 봄
모란봉 꽃구경을 가고
금강의 봄길에
내 가슴에도
뜨거운 은구슬 흘리던 일...

꿈같은 감격의 나날 보내다
조국을 떠나는 눈물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선물을 주시었나이다

이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드리라고
조국산천의 백도라지 고운 꽃무늬
초록색비단의 치마저고리감을
친히 주시었나이다

봄기도 완전한 4월의 이 명절날
수령님의 따사로운 그 사랑에 싸인듯
내 어머니 치마저고리 차려입었나이다
도라지꽃치마저고리의 내 어머니
마음속에도 백도라지꽃 피었나이다

모질고 거센 찬바람 50년에

머리에도 흰서리 내린 우리 어머니
오늘은 고향의 봄노래 들으시는듯
끝없는 그 희망, 그 기쁨처럼
봄아지랑이 아질아질 가슴에 떠오른듯

나라의 주석님께서 주신 치마저고리
내 어머니 고맙게 차려입고
기쁨의 걸음을 걷나이다
자랑의 걸음을 걷나이다

고향에 계시는 내 할머니 마음에도
백도라지 꽃송이 방실 피어나도록
밝은 봄빛도 저절씨구 춤을 추도록
내 어머니 통일예로의 길 걷나이다

도라지 꽃향기, 조국 꽃향기
만수대의 봄별에 싸여
마음도 한결 젊어지신 내 어머니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꼭 보답하리다-
억센 다짐을 안고
충성의 꽃송이 한아름 안고
4월의 이 명절날에 내 어머니 마음은
만경대 꽃길을 사뿐 걷나이다

조국산천의 백도라지
초록색비단의 치마저고리
비단날개되어 산 넘어 바다 넘어
반백년 못가던 조국길을
걸고걸나이다

김학렬

준엄한 길에서

허춘식

1

석양이 비낀 남쪽하늘아래서는 불길이 타고르고 있었다.

파괴된 아스팔트우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탄약을 실은 자동차들이 질주해가는데 도시의 번두리를 흐르는 강안에서는 기관총소리들이 어지럽게 울리었다.

포수리소가 자리잡고있는 철공소근처에서는 짐을 실은 마차들이 대기하고있었다. 마사원들은 미진한 시중을 들며 말의 배띠를 조이고있었고 행군준비를 마친 수리병들은 서북쪽에서 들려오는 전투의 소음에 긴장하게 귀기울이군하였다. 남쪽으로부터의 진격을 저지당한 적들은 서북쪽으로 진출하여 아군의 길을 차단하려고 발광하는것이였다.

풍채좋은 몸집에 훌륭한 양복차림을 하고 네모진 이마에 모자를 눌러쓴 중년사나이가 정문보초소앞에 나타났다. 호출을 받고 나간 경비분대장앞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펼쳐 땀을 훔치면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 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유심히 그의 얼굴을 지켜보던 병사는 아무말도 묻지 않고 지휘관에게로 알리러 갔다.

행군서열의 편성을 검토하고있던 수리소장 최덕준은 병사의 말을 들으면서 달갑지 않는듯 이마에 주름살을 지었다.

《사민이라니? 동문 우리가 병기와 전투기재의 예비를 보유하고있는 부대라는걸 잊어버렸소?》

《아직 정문안에 들여놓지는 않았습시다.》

해맑은 얼굴에 눈썹이 진한 경비분대장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부대장동지를 꼭 만났으면 합니다.》

《당장 출발해야 할터인데 언제 한가하게 사민을 만난단말이요!》

《그래도 만나보셔야지요. 아주 중요한 일같은데...》

충명하게 반짝이던 두눈을 내리깔며 병사는 유감스러운듯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그의 표정을 일별한 소좌는 이마에 주름살을 짓더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은 뭐이라요?... 용건을 물었어야지, 참.》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얼굴빛이 검검한 소좌는 한눈을 찌긔하고 이쪽을 여겨보는데 능청스러운 미소가 떠도는 그의 눈에

는 아이들같은 지킴은 호기심이 나타나있었다.

《히, 그런 일이였군.》

하고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용건을 짐작하겠구만.》

《아니 저하고 아는 사이인것이 아니라 저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의용군으로 입대한 경비분대장은 자기가 아는바를 털어놓았다.

《아마 이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상해며 동경이며 다니지 않은데가 없고 왜놈때엔 반일경향이 있는 출판물에 자금을 대주었다 해서 경시청에 끌려다닌 일도 있는데 일본총독놈한테 불려가서도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유명한 인물이지요. 해방직후엔 북조선에 갔다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렇다-》

말꼬리를 길게 끌며 생각에 잠겨있던 최덕준은

《믿을수 있는 사람이요?》

하고 엄하게 물었다.

《제가 그걸 어찌 담보하겠습니까? 좌우간 큰사람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소좌는

《중소, 만나봅시다.》

하고 용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계급투쟁이 치열한 때인만큼 사람들을 심중하게 대해야 하오. 곧바로 사무실로 안내하시오.》

덕준은 군용지도를 접어 야전가방에 넣은후 혁띠를 조이고 그밑으로 옷깃을 수습하였다. 방안에 들어선 사람은 모자를 벗으면서 점잖은 미소를 띠었다.

《종로구에 사는 현빈이올시다.》

마치 그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가 다 알수 있다는 듯한 의젓한 태도였다.

《앉으십시오.》

현빈은 은빛도금을 한 사치한 담배갑을 펼치고 담배를 권하였으나 이쪽은 방금 피웠노라고 사양하였다. 그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한모금 깊숙이 들이키는데 이렇듯 촉박한 정황에서 자기의 용건을 어떻게 종잡아 말한것인가를 생각해보는듯한 표정이었다.

《요긴한 부탁이 있어 왔습시다.》

흠여지는 연기사이로 얼굴을 찌프리면서 사뭇 심중하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십시오.》

소좌는 코트의 목깃사이로 무늬진 넥타이가 드러나보이는 그의 세련된 옷차림을 스쳐보면서 짐짓 너그럽게 말했다.

《저는 신문발간사업에 관제하였습니다. 업무상 용건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후퇴가 시작됐군요… 거의들 떠나갔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오늘안으로는 다 출발한다는겁니다.》

《정세는 몹시 긴장합니다.》

《한데 저에게 있던 화물차가 폭격에 마사지고보니 운수기재가 없습니다그려.》

여기까지 말한 그는 기대어린 미소를 짓고 소좌를 건너다보았다. 이쪽은 그가 부탁하려는바를 짐작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다섯동생을 먹여살리려고 병든 홀어머니를 도와 열여섯 어린나이적부터 체철소 주물직장의 무죄주형틀을 들고다니며 뼈가 굵은 최덕준은 회고 부드러운 손을 가진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자기앞에 앉아있는 사람-보아하니 부유하게 지낸것이 틀림이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었으니 정세가 엄혹한 이러한 시기에 인민군대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려는 그에 대해 호의를 품었고 믿고싶었다. 수리전용의 자동차들은 전투수송에 동원되고 군용마차들도 부족하여 무기와 기재들을 빼곡이 실은터였으나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싶었다.

《로인님들이나 아이들때문이겠지요?》

《아니… 가족은 이미 촌으로 피난들을 시켰습니다. 짐이 좀 있어서 그러지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좋을터인데 없다면 마차라도 한대 있으면 되겠습니다.》

《웅근 한대요?》

《웅근 한대지요, 그렇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권리라도 있는듯 현빈은 태연하게 미소했으나 문득 검소레한 얼굴에 광대뼈가 두드러진 군관이 자기를 미심쩍게 살피고있음을 감촉하자 코트의 옷단추를 끄르고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서둘러 꺼내었다.

네절로 접은 16절지에는 이 편지의 지참자인 현빈선생에게 최선을 다해 수송기재를 보장해달라는 부탁이 써여있었다. 공문서도 아니고 또한 수신인이 지정되어있지도 않는 쪽지에 불과했으나 거기에는 그 필요성을 담보하는듯 구역주권기관일군의 서명이 있었으므로 최덕준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근로인민의 주권을 자기의 혈육으로 느끼고있는 그는 그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주고싶었다.

하지만 지금 마차의 예비는 없었던것이다.

무슨 변통이 없을가 하여 마사관리장인 탁근수를 불러왔다. 키가 작고 다부지게 생긴데다 군복을 입

었어도 농민의 티가 그대로 나는 상사는 결상에 앉아있는 사민을 탐탁치 않게 훑어보면서 상관의 말을 듣는것이였다.

《한대요?… 실은 짐을 부리우기전에는 없지요. 생으로야 당장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내키지 않아하는 표정도 력력했으나 그의 말은 또한 사실이기도 했다. 정황이 그러함을 확인이라도 하는듯 뜰안에서 성급한 나팔소리가 울리였다.

최덕준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팔에 완장을 두른 직일관이 들어와서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했다.

《예정대로 출발하십니까?》

무거운 생각에 잠겨 말이 없던 최덕준은

《잠깐… 나가봅시다.》

하고 일어섰다. 그를 뒤따라 다른 사람들도 뜰로 나갔다.

말잔등에까지 뻘뻘이 위장을 한 마차들마다에는 무기며 기계들이 묵직하게 실려있는데 쌍두마들에 견인한, 미처 다 수리하지 못한 포가들에까지 량식과 탄약함들이 얹혀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태의 곤란함을 과시하는듯했다.

구분대장들이 모여와서 출발준비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고있을 때 서쪽으로 열린진 거리로 질주해오던 한대의 찰차가 철공소 건물앞에 와서 속도를 늦추더니 보초소를 지나 뜰에 와서 멎었다. 차에서 뛰어내린 애젊은 연락군관이 부대장을 찾았다.

《부상병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당부하듯 말했다.

《응급처치는 했으나 후송기재가 없습니다. 이 차는 광나루를 사수하는 사단에 연락을 갑니다. 통신이 두절되어서…》

최덕준은 찰차에로 다가가 열린진 문으로 몸을 굽히고 뒤자리에 거북하게 누워있는 부상병들을 살펴보았다.

《방금전에 놈들은 사십여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불의에 서북도로계선으로 돌진해왔는데 우리는 아홉대의 탱크로 정면반동격을 단행했지요. 사단장자신이 직접 탱크에 탑승하여 나가면서 전투를 지휘하여 놈들을 격퇴하고 탱크 다섯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대위동무는 그때 선두탱크에서 싸운 지휘관이 고 저쪽동무는 포장입니다.》

수송기재의 예비가 없음을 확인했던터이였으나 지금 자기앞에 누워있는 부상당한 사람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계급적으로 통일된 동지들의 피흘린 모습을 보자 뜨거운 정이 가슴에 북받쳐오르는 것이였다.

《우리에게 말기시오!》

심각한 표정에 싸여 그렇게 말한 최덕준은 행군 직일관에게로 돌아섰다.

《예비탄약을 실은 마차를 내여 이 두 동지들을 태우시오. 마차를 종대의 선두에 세우고 위생병들

이 돌보도록 하시오. 부러운 탄약은 행군하는 동무들이 나누어 휴대하고… 그렇소, 곧 출발합시다.》

얼마후에 행군중대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련락군관이 탄 썰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전장으로 내달렸다.

그 모든 정경을 침울한 눈길로 지켜보면서 현빈은 현관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한동안 그의 존재에 대해 잊고있었던 최덕준은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보시다싶이 이런 형편입니다. 도와드리고싶지만…》

꼭 책임져야 할 알은 아니였으나 믿고 찾아온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것으로 하여 우울했다.

《정 무엇하지 않다면 요긴한 물건들을 휴대하고 걸어서라도 떠나야 합니다.》

말하고나서도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던 현빈은 쓸쓸한 표정에 싸여 발길을 돌렸다.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그의 코트자락이 펄럭이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맥없이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우는 최덕준의 가슴은 무거웠다. 이 준엄한 시기에 다해야 할 인민군전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듯한 자책이 그를 괴롭히는것이였다.

2

새 계선에 당도한 부대는 행장을 풀고 마을뒤산기슭에 전개하여 련대들의 전투준비를 보장하였다. 이들을 수리작업으로 보내고나서 다시 명령을 받았다. 제2제대에 편입되어있는 다른 부대들을 따라 차후지점을 향해 행군하라는것이였다. 새벽에 떠나기로 하고 농가에 흩어져 휴식들을 했다.

달없는 가을밤.

별많은 하늘에 꿈같은 은하가 흘러갔는데 류성이 떨어져내리는 땅우에서는 전투의 화광이 번뜩이고있었다. 마을 저쪽으로 뻗어간 큰길로는 병사들의 행렬이 련달라 지나가고 이따금 자동차들의 부르릉소리와 힘겨워하는 말울음소리가 멀리까지 파동쳤다. 북으로 북으로 움직여가는 행군의 소음을 들으면서 최덕준은 남으로 진격하던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포연에 그슬은 얼굴들에 씩씩한 미소를 짓고 해방된 거리, 감격에 눈물흘리는 인민들의 환호에 손저어 화답하며 앞길을 재촉하던 전사들과 지축을 울리고 뜨거운 먼지를 일으키며 남으로 진격하던 그 장엄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꿈틀거리고 복수의 강렬한 충동으로 하여 두주먹에 불끈 힘이 주어졌다…

간간이 어지러운 폭음을 퍼뜨리며 미국놈의 야간정찰기들이 머리우에서 선회하고 파르스름한 조명탄이 어둠을 찢을 때마다 보총들이 귀찮은듯 공포를 울리였다.

부대의 숙영지를 돌아보고나서 떠나기전에 얼마

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지휘부가 자리잡은 농가를 향해 걸어가던 최덕준은 보초를 교대시키고 오는 경비분대장을 만났다.

《지금 지나가는게 어느 부대요?》

하고 그는 피곤이 어린 목소리로 물으며 지나하는데 상관을 알아본 분대장은 어둠속에 걸음을 멈추었다.

《참 별일이군요. 그러지 않아도 찾아가던중입니다.》

흥분하여 두서없이 떠들며 분대장은 발돋움하듯 행길쪽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지?》

최덕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을 바라보며 흥심없이 물었다.

《저앞에서 지나가던 마차가 서있는 포차를 받아 놓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시다.》

《마사원이 존 모양이군.》

《존것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 쉬는 전사들을 피해 간다는게 그렇게 되였다는군요.》

《있을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거기 동무들은… 마차군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차림새부터가… 넥타이를 매고 코트를 입고… 그제 누군지 아십니까?》

《…………》

《현빈선생입니다. 그 왜 알지요?》

《잘못본게 아니요?》

최덕준은 긴장해지며 물었다.

《제가 왜 잘못보겠습니까! 그때의 그 차림 그대로 인걸요. 사람들이 자꾸 따져물으니 나중엔 대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차림으로 대오도 없이 가느타이니 더 수상쩍어하지요.》

최덕준은 행길을 향해 걸었다.

현빈에 대해 아는것은 별로 없었지만 것처럼 어려운 때에 요긴한 청을 들어주지 못한것이 못내 후회되던터이므로 지금 곤경에 처해있을 그를 가능한 것 도와주고싶었던것이다.

사건현장에 당도하여 사정을 알아보고는 담화하고있는 군관을 조용히 한켠으로 불러내였다. 현빈이 며칠전에 최덕준의 부대에 찾아와 방조를 청하였던 사실을 다 듣고난 그 군관은 의심이 풀리어 떠나기를 서둘렀다.

현빈은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잊어버린듯 소탈하게 웃으며 최덕준을 반기는것이였다.

《이력저력 따라옵니다.》

포차도 행군대오도 떠나가버린 행길에는 그들만이 남았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면서 얻어먹긴 했는데 아침을 먹었던지 점심을 먹었던지…》

호협해보이는 그의 말투에 소좌는 싱긋 웃었다.

준경과 더불어 그 어떤 친근감조차 느끼면서 그를 마을로 안내했다. 현빈은 말고삐를 잡고 무겁게 걸음을 옮겨놓으면서도 이따금씩 마차에 실은 물건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채소과는 사람한테서 마차를 샀는데… 물고 오면서 보니 신통치 않더군요. 오늘은 아침부터 땀뿜거리면서 힘을 쓰지 않으니…》

《말을 부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처음이지요. 하지만 당해보니 안될것도 없더군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이 번번치 않은 말몰이군이 길가는 행렬들과 마차들사이를 지나며 애먹었을 일을 생각하니 미안함을 금할수 없었다.

식당으로 정한 농가에 이르렀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모포를 내려친 문을 열고 부엌간에 들어섰을 때 기름방등안에 드러난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사뭇 심중해졌다.

차림은 모두 처음 만났을 때의 그대로였으나 홀룡하던 코트의 앞자락은 무엇에 걸려서 찢어졌고 때묻고 구겨진 와이샤쓰우에 비뚤어진 넥타이가 아무렇게나 달려있었다.

최덕준은 아늑한 방안으로 모시려 했으나 현빈은 문틈으로 전사들이 피곤하게 쉬고있는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사양하였다.

《아무데서나 괜찮습니다.》

취사원이 꾸밈히 떠준 음식을 맛있게 천천히 먹으면서 길을 올 때에 말들이 애를 먹이던 것이며 행군하는 전사들이 자기 모습을 보며 웃곤하던 일들을 떠올리며 말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웃기였다. 볼품없이 되어버린 옷주제와 더불어 말마디들에서 령남지방의 된소리가 섞여 나오군하는 그의 이야기는 진실감이 있었고 그가 겪은 고생이 동정을 자아냈으므로 처음 알게 된 전사들조차 호감을 품는 것이었다.

최덕준은 뜰안을 천천히 거닐면서 그를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것인가를 생각하고있는데 마사판리장이 나타나더니 불만인듯 중얼거리였다.

《소좌동무, 그 사람은 꼭 부르죠아 같습니다. 틀림없어요.》

《글쎄 못살던 사람같진 않소.》

최덕준은 웃으며 대답했으나 저쪽은 유쾌하지 않은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무엇때문에 우릴 따라온답니까?》

《우리 당과 인민주권을 지지하기때문이겠지!》

《모르겠는데요, 의심스럽습니다… 난…》

짐짓 미소를 거두며 소좌는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말들말입니다. 말들을 보십시오. 어떤 꼴로 만들었는가… 홀룡한것들인데 아주 망쳐버렸거든

요.》

탁근수는 사뭇 심각해져서 떠듬거렸다. 얼마큼 협애하지만 무척 성실한 사람인 이 농민출신의 병사는 마필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은연한 반감을 품기도 한다는 것을 최덕준은 잘 알고있었다.

《길을 서두르다나니 그렇게 되었겠지, …좌우간 래일아침 우리와 함께 떠날수 있도록 말들을 잘 먹고 폭 쉬게 해주오.》

《그 말들은 래일 떠나지 못할겁니다. 열에 떠서 귀가 드리우고 코구멍에서 찬김이 나오는 형편인데요.》

탁근수는 가슴이 아픈듯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돌봐주지 않고 그렇게 마구다지로 때려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먹이지 않았소?》

《먹이지나 않았으면 괜찮지요. 소금이나 꿀분은 한알도 주지 않고 콩과 물만 들입다 먹이면서 때려물기만 해서 시죽을 영 못썰요. …병이 났습니다.》

《말을 다루어보지 않던 사람이니 그럴수도 있지.》

최덕준은 너그럽게 타일렀으나 탁근수는 그냥 푸념이었다.

《암만 그렇기로서니, 말이 염분을 못먹으면 열에 떠서 병이 난다는것쯤이야 모를리 없지요… 다른 부대동무들이 의심했다는게 까닭이 없지 않지요. 정체를 모를 사람이라니까!》

탁근수는 마치 그를 비호하는 자기네 지휘관도 불만이라는듯 드러내놓고 두덜거리는데였다. 최덕준은 그러한 그의 태도가 나무람지 않은듯 어둡속에서 싱긋 웃었으나 대화의 중점은 놓치지 않았다.

《공연한 소리 말고 말들을 잘 손질해주오. 그 말들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 말이라도 빌려주어야 할 형편이요.》

《믿을수도 없는 사람한테요?》

《믿을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준엄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믿고 우리들과 운명을 같이하고있소.》

탁근수는 수궁되지 않는듯 웅얼거리면서 림시마사가 자리잡은 마을뒤쪽으로 멀어져갔으나 최덕준은 무거운 생각에 싸여 어둡속을 여전히 거닐고있었다. 비록 말로는 엄하게 나무랐으나 정서로는 그 심정을 따뜻하게 리해했으니 소작농의 생활에 조들리며 살아온 탁근수의 과거를 잘 알았고 그것으로 하여 그를 더욱 사랑하는터이었다.

현빈은 식사를 마치고나서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뜰에 나왔다. 신고끝에 한숨 놓이는듯 차거운 밤공기를 폐부가득히 호흡하고나서 혼자 빙그레 웃었다.

어둠속을 천천히 거니는 최덕준을 알아보자 가까이로 다가오면서 따뜻한 접대에 대해 치하하는것이였다.

《군관동무, 이거 고맙소!》

그 짙막한 인사말에서는 소탈한 인정미와 진정이 풍기고있었다.

《좀 쉬어야지요.》

숙소로 준비시킨 지휘부가 든 이웃집농가로 안내하려 했으나 저쪽은 진지하게 사양하였다.

《고맙소. 하지만 내 잠자리는 넘려마시오. 난 저 마차우에서 자겠소.》

《밤날씨가 이렇게 찬데 한데서 어떻게 쉽니까? 날샐녁이면 더욱 추워집니다.》

《괜찮소, 모포도 있으니 추워쯤은 괜찮을거요. 난 오히려 지내 깊어 잠들어버릴까 걱정이요!》

마차에 실려있는 짐을 넘려하고있음을 깨달은 소좌는 경비원들이 보아주겠으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나 현빈은 선선히 물리치는것이였다.

《고맙소만 난 어디로도 가지 않겠소. 마차에서 자겠소.》

그의 생각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깨달은 최덕준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하지만 그 짐속에 무엇이 있을가 하는 의혹이 느닷없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저 실례이지만 마차에 실은것이 무슨 짐입니까? 귀중한 자료나 중요한 문서들이겠지요. 아니면 서적이나 혹은 인쇄기계인가요?》

그렇게 묻는 최덕준의 얼굴엔 알릴듯말듯 미소가 어리고 그 어조는 저으기 부드러웠다. 자기로서는 그런 일속을 잘 모르는터이니 설혹 맞지 않는다 해도 랑해하라는 표정이였다. 하지만 저쪽은 소좌의 어조나 표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쪽에서 난처한듯 대답을 망설이였다.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 좌우간 귀중한것이요. 가구에 속하는 물건이지요.》

《무엇이라고요?》

《사무실 용비품인데… 하긴 가구라고 할수 있소.》

《……》

최덕준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의 실망한듯한 침묵이 마음에 걸렸던지 현빈은 한마디 덧붙였다.

《그걸 구입하려고 나는 있는 재산을 거의 털어넣었던거요. 상등 가는 진품이지요.》

그의 말에서는 진정이 울리고있었으나 소좌는 이미 귀담아듣고있지 않았다. 무엇인가 기만당한듯한 불쾌한 기분에 싸여 숙소로 돌아왔다. 《재산》이요 《상등 가는 진품》이요 하는 말마디들이 새겨지지 않아 쓰겁게 웃었다.

(한쪽에서는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있다니…)

현빈에 대해서뿐아니라 그를 비호하여온 자기자

신에 대해서도 참을수 없는 혐오에 싸여 그렇게 생각했다.

이날밤따라 총포란이 작렬하는 전장에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대고 총격전에 뛰어드는 일선 전우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물기둥이 솟구치고 귀부리에서 탄환이 언짢게 회파람불던 금강의 도하장에서 물에 젖고 화약연기에 그슬린 전사들과 더불어 돌격으로 나아가던 일이며 점거한 적진 참호의 흉장너머에서 쓰러진 자기를 안고 내의를 찢어 가슴의 상처를 치매주던 전혀 알지 못하는 공병대원이며… 전우들과 더불어 생사의 운명을 같이하여 혈로를 지나오던 일들이 가슴쓰겁게 떠오르는것이였다…

군복을 입은채로 엿비듬히 잠이 들었던 그는 이른새벽에 깨어났다. 개울가의 찬물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경비분대장이 기다리고있었다.

《밤중에 위수구역내에서는 아무 사고도 없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절도있게 보고하고나서 내키지 않는듯 이렇게 덧붙였다.

《저… 그 사민이 마차에 실고오는것말입니다. 주단이더군요, 고급주단…》

《주단?》

최덕준은 군복 옷벌 단추를 채우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찌프렸다. 경비분대장은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눈을 내리깔았다.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주단이 옹근 한조입니다.》

한동안 말 못하고 서있던 최덕준은 그 일은 온통 말하고도싶지 않은듯 화재를 돌리였다.

《경비소대동무들은 좀 휴식들 했소?》

경비분대장 역시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는듯

《충분히 잤습니다.》

하고 명랑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마을길에 바빠 뛰어다니는 전사들의 모습이 자주 언뜻거리고 도간도간 짧은 구령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덕준이 마사에 들렀을 때 관리장은 마필들이 이상없고 행군준비가 되었음을 보고하는것이였다.

《한데 그 사민이 몰고오던 말들은 두필 다 가낼것 같지 못합니다. 배를 깔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거던요.》

작은 눈을 깜빡거리는 품이 부대의 마필들을 제 공하라고 할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정 할수없으면 여기 마을사람들에게 랑해를 구하고 다른 말을 얻어야지.》

하고 최덕준은 마지못해 응했다. 저으기 달라진 지휘관의 태도에 뜨아해진 탁근수는 눈을 뻔히 뜨고 소좌를 쳐다보았다.

《그러자면 꼭 지체될것 같은데요.》

《할수 있는것 도와주시오.》

이쪽을 외면한채 응글은 목소리로 소좌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때문에 지체해서는 안되겠소. 꼭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는 없는거니까!》

그렇게 아귀짓고나서 최덕준은 지휘부로 향했다.

3

한낮의 해빛이 내려조이는 산기슭에는 연보라빛 들국화가 점점이 널렸으나 무한궤도와 고무바퀴들에 짓이겨진 길가의 풀대들은 먼지를 들썽채 기진한듯 누워있었다. 들판에선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 바람에 설레이건만 일하는 농민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높이 개인 가을하늘에 동체를 기우뚱거리며 미국놈비행기들이 침습할 때면 울려퍼지는 총소리와 성난듯한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구분대들은 골짜기나 수림속에 흩어졌다가 이윽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저격무기를 실은 마차의 앞채에 걸터앉아 최덕준은 산등성이를 구불구불 달려가고있는 행군중대의 앞머리를 바라보고있었다. 등성이 저아래로는 크지 않은 들이 펼쳐져있고 그 저쪽에는 재빛지붕들이 아물거리는 초라한 마을이 바라보였다. 게으름을 자아내는 포근한 해월에 마사원은 건뎡건뎡 줄고있었으나 눈섭을 찌프리고 앞길을 바라보는 지휘관은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점심식사를 하려고 휴식하던 골짜기에서 부대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는바 오늘 도착하는 계선에서 한개 중대의 전투력량을 편성하여 방어를 준비하는 그곳 련대에 배속시키고 수리소는 나머지 성원들로써 기재와 마필을 보존하여 행군을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선이 더욱 가까이로 이동되었고 적정이 더욱 긴박하여지고있음을 의미하는터이며 그들의 행군이 앞으로 더욱 간고하리라는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어떤 곤란이 있어도 목적지까지는 전투력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가야 한다.)

그 목적지가 멀고 가는 길이 험난하리라는것을 어렵으로 짐작하면서 최덕준은 그렇게 마음다지는 것이었다.

마차가 불시에 길바닥에서 튀어오르는통에 그는 앉은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옆에 앉았던 마사원이 놀라서 앞뒤를 살피더니 고삐를 늦추며 채찍을 휘둘렀다. 또다시 어디선가 총성이 울리자 그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흰 조각구름이 떠가는 동쪽하늘에 미국놈비행기의 편대들이 나타난것이였다.

무거운 마차를 덜컹거리며 말들은 굵을 안고 뛰는데 훈련된 병사들은 날쌔게 말등에 올라 고삐를 나누채며 은폐장소로 몰아갔다. 선두기가 아츠러운 폭음을 퍼뜨리며 낮추 내려꽂히더니 길저편의 황

금빛 논판에서 전광같은 불빛과 함께 시커먼 흙먼지가 솟구쳤다. 밤나무숲 여기저기 흩어져가는 대원들을 둘러보면서 마차에서 뛰어내린 최덕준은 나무가지들사이로 두번째 세번째의 적기들이 급강하는것을 살피고있었다. 하지만 이미 도로가 텅 비어버렸음을 알았던지 적기들은 밤나무숲으로 돌아치면서 눈먼 기총소사를 누벼대더니 서남방향으로 멀어져갔다.

《들어섰던 김에 쉬어가자.》

그늘진 밤나무숲속으로 걸어가면서 묻는듯 자기쪽을 보는 직일관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말들이 놀랐겠소.》

《적기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밤나무우에서 감시병이 소리쳤다. 참쑥과 다북떡쑥, 뽕딸기 덩불이 부르르하게 뒤덮인 숲변 두리에 나서자 허공중에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적기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는것이 보였다.

《은폐한 장소들에서 대공사격을 준비하십시오.》

허벅다리에서 철떡거리는 야전가방을 한손으로 눌러잡고 직일관은 명령을 집행하러 뛰여가고 새끼수세미로 땀난 말몸뚱이를 문지르며 떠들썩하던 전사들의 웃음소리도 증축해졌다.

《개자식들, 헛물을 켜고나니 배아프던 모양이지.》

누군가의 비양하는 소리가 끝나기도전에 선두기가 기수를 꺾고 도로를 따라 길다란 런발사격을 퍼부으며 땅우에 낮추 호를 그리었다. 때를 같이하여 밤나무숲에서는 경기관총들이 기세좋게 불을 뿜었다. 두번째로 내려꽂히는 적기의 공격방향을 가늠하던 최덕준은 문득 소나무가 듅성듅성한 야산굽인 돌이에 한대의 마차가 나타난것을 보았다.

파르스름한 탄막이 흩어져날으는 행길을 따라 두필의 말은 갈기를 날리며 내달고 마차의 앞채에 엉겨주춤 일어난 사람은 량손에 고삐줄을 갈라잡은채 어쩔바를 모르고 허둥대고있었다. 반나마 벗겨진 코트자락이 덩벼치는 사람의 등뒤에서 기폭처럼 펄럭이는것이였다. 대공사격을 저어하여 적기는 그저 기총을 휘두르며 지나가는데 찰나의 위기를 면한 말들은 환하게 드러난 도로우에서 미친듯 앞으로만 내달는것이였다.

《말들을 다루어내지 못하는구나.》

손에 땀을 쥐고 서있던 최덕준은 피로운 총격에 얼굴을 찌프리며 행길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마사관 리장은 이미 언덕을 가로질러 굴듯이 그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때 꼬리를 물었던 적기의 런발사격에 우측말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일시에 목줄과 끝방에 엉겨돌면서 다른 말과 함께 마차우에 서있던 사람까지 길바닥에 나딩굴었다. 질주하던 속력에 뿌리여

길앞에 나가 쓰러진 사람은 번듯하게 활개를 던지고 일어서지 못했다. 구출하러 뛰어가는 전사들은 아직 행길에 멀리 미치지 못하였는데 편대의 마지막 적기가 겁먹은듯 낮은 비행을 피하며 시커먼 소이탄을 마구 던졌다. 길가의 논두렁에서 솟구쳐오른 폭발은 그 일대의 곡식과 잡초들을 순식간에 꺼명게 태워버리면서 휘뿌려진 점액질의 가연성액체에 불붙어올라 맹렬하게 가로수들을 휩싸며 행길에까지 뻗치고있었다.

불길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서로 덮치며 이동거리는 말들도 마차도 그리고 생사를 분별할수 없이 쓰러져있는 사람도 금시 덮칠듯했다. 엄습하는 화기에 놀란듯 눈을 뜬 그 사람은 사태를 일별하자 자기를 잊고 별책 일어섰으나 두걸음도 떼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그러나 그 어떤 초인간적 힘으로 또다시 몸을 일으킨 그는 구출하러 달려가는 전사들을 보지 못하였는지 불길이 널름거리는 마차쪽으로 번디지며 걸어가는것이였다.

《현빈선생!》

최덕준이 뛰어가며 소리쳐 불렀으나 그는 돌아다도 보지 않고 마차를 향해 돌진하듯 걸음을 옮기다가 멍에줄에 걸쳐어 앞으로 넘어졌다. 뛰어간 전사들이 급급히 안아일으켰을 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다잡으며 목신 소리로 당부하는것이였다.

《나를 놓아두고 저 주단을... 마차우의 짐을... 부탁이요.》

그리고는 안타까운 소원을 하소하듯 자기를 안아올린 전사들의 손을 절절하게 더듬는것이였다.

언뜻 그쪽을 돌아본 최덕준은 그를 업어가게 지시하고는 뒤따라온 전사들과 더불어 마차에 뛰어가 휩쓰는 연기를 무릅쓰고 짐을 들어내었다. 두터운 방수포로 포장한 그 짐은 두셋이서 들어올릴수 없으리만큼 무거웠으나 돌아치는 미국놈의 비행기와 덮쳐우는 불길에 강심을 먹어서인지 어렵지 않게 맞들어 언덕쪽으로 메여갔다. 뒤에 남은 탁근수가 고삐줄을 끊고 상처입은 말까지 불속에서 끌어내었으나 현빈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그 모든것을 보지 못하는것이였다.

대피하고있던 밤나무숲에 와서 그를 치료했다. 터진 머리에 붕대를 하고 탈골된 어깨뼈를 간신히 맞춘 뒤에 위생지도원이 아껴오던 강심제를 두대나 주사했다. 부상자는 길다랗게 한숨을 내쉬더니 의식이 돌아오는지 얼마후에 눈을 떴다. 자기를 굶어보는 전사들을 둘러보다가 신평오던 짐이 가까이에 놓인것을 보자 두눈에 흥분한듯 눈물이 어리는것이였다.

《고맙소, 동무들... 고맙소.》

힘없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는 그 말이 전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곁에 묵묵히 서있던 최덕준

은 일이 이 지경으로 되어버린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듯한 자책을 느끼는것이였다.

《현빈선생,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에게로 낮추 허리를 굽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부상자는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가 손시늉하는 뜻을 깨달은 위생지도원이 물통을 기울여 몇모금 마시게 하자 말라들었던 입술에 생기가 돌았다.

《자꾸 성가시게 굴어 미안하오.》

《공연한 말씀입니다.》

최덕준은 괴로운듯 그의 말을 밀막았다.

《우리는 선생을 후방병원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대장동무, 하지만 난... 저 짐을 여기 두고는 아무데로도 가지 않겠소. ...갈수가 없소.》

《현빈선생, 지금은 전쟁입니다.》

걱정을 지그시 누르며 최덕준은 준절하게 말했다.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이 바쳐지고있으며 전쟁의 운명에 따라 인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때입니다. 아무리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라 해도 전쟁과 관련이 없는것이라면 결코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기재만 신평 가채도 힘에 부친데...》

현빈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눈꼬리에 주름이 가고 고행의 흔적인양 먼지에 얼룩졌으나 그런대로 평온한 그의 얼굴에는 부대장의 말에 대한 수공의 빛도 반발의 기색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오래전 과거, 어쩌면 자기의 평생을 더듬어보는듯한 진지한 신념이 어려여있을 뿐이였다. 그리하여 전사들은 붕대를 감아 더욱 두드러져보이는, 네모진 이마에 주름이 지고 희끗희끗 세기 시작하는 판자노리며 꼭 다물은 입모습이 한나름으로 강한 의지를 말해주는듯한 이 중년 사나이에 대한 존경심을 의연중 품게 되는것이였다.

한동안이 지나 조용히 눈을 뜬 그는 밤나무가지들사이로 파랗게 띄운 가을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것이였다. 허영게 뻗어간 행길이며 총탄이 파헤치고 폭풍이 휩쓸던 누런 들판이며 밤나무숲우로 가없이 펼쳐진 무한대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는듯 그윽한 명상에 잠겨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라가 해방되던 해 초겨울에 나는 북조선엘 찾아갔었소. 일제통치의 암흑천지에서도 늘 가슴속에 우러러모시던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옵고싶은 꿈같은 소원을 품고서...

평양에 머무르면서도 해방된 새 나라의 국가대사 전반을 이끄시며 돌보시는 다망하신 장군님을 만나 뵈울수 있으리라고는 실로 아무런 자신도 없었소. 대전후의 문제로 세계가 분주하고 나라의 정국이

소란한 속에 민주건국의 새 기운이 태동하는 다사다난한 때였소!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에서 한 이름없는 인사가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친히 접견을 허하셨을뿐아니라 황송하게도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반갑게 맞아주시었소.

헐치 않았을 길나들이를 걱정하시며 한날 출판업자요 명색없는 사회활동가인 보잘것없는 이 몸과 내 가족들의 안부에 대해서까지 따뜻이 물어주시고 뒤엎기는 남조선의 사회형편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에 대하여 농칠세라 주의깊이 들어주시고 동포애의 뜨거운 정으로 헤쳐나갈 앞일에 대해 간곡히 가르쳐주시던 감개무량한 그 모든 사연들을 어찌 이루 말로 다할수 있겠소!

현세의 위인이신 그이의 천품과 인자하신 성덕에 대하여서는 동무들이 아마 나보다 더 잘 알고 들었겠지요...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때의 일들을 눈앞에 그려보듯 현빈은 커다랗게 뜬 눈으로 푸르른 하늘을 우러르고있었다.

《위훈과 업적이 해내외에 진동하고 지나오신 자욱자욱이 청사에 찬란하건만 장군님께서서는 그처럼 소박소탈하시고, 일하시며 지내시는 품이 그렇게도 겸손한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이었소...

사무실만 하여도 회벽을 바른 방안에 니스를 칠한 보통의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있을뿐인데 장식도 없이 나무로 쪽무이를 한 방바닥을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거니시었소...

그 방의 갖춤새며 장식 없는 검박한 차림차림으로 하여 장군님의 고결한 인품은 더욱 빛나는것이였지만 한편 이 나라에 사는 뜻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크낙한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서운함을 금할수는 없었소.

만민의 수난을 끝장내고저 백두산야에 풍찬로숙하시며 혈로 만리를 헤쳐오신 인민의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이였소...

제고장에 돌아온 뒤, 장군님에 대한 겨례의 회망과 존경심이 높아지고 더하여갈수록 내 가슴속에서는 그 일이 더욱더 맺히여 내려가지 않았소. 하여 오래 생각던끝에 있는 재산을 기울여 변변치 못한 이 한가지를 겨우 구했던것이요.》

긴 이야기에 호흡이 가빠지는듯 현빈은 말을 멈추었으나 둘러서있는 전사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긴장하게 귀기울이었다.

《전쟁이 일어난후에 장군님께서 해방된 도시에도 포탄이 터지는 전선에도 나가시여 불비한 지휘부나 누기찬 전호에서 전사들과 함께 지내신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주단을 그이 계시는곳

에 짊어드리고싶었소...

간절한 소원을 품고있다가 이렇게 떠나긴 하였는데 험난한 길에서 무사히 가내졌는지를 장담할수가 없소구려.》

불어오는 소슬바람이 밤나무잎새들을 와스스 흔들고 지나더니 숲속은 더욱더 고요해졌다.

《현빈선생!》

걱정에 싸여 그렇게 부르짖는 최덕준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듯하여 말을 이을수 없었다. 그와 얹히여있던 그저간의 일들이 새삼스러이 떠오르면서 지나온 헐치 않은 길에서 그 귀중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채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였으랴 생각하니 머리가 수그러지는것이였다. 심장을 아프게 찌르는 자책과 더불어 그 어떤 결의에 충만된 그는 주먹을 꼭 틀어쥐면서 가슴속 진정을 털어놓았다.

《현빈선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있는한 주단은 털끝 한점 손색없이 운반되어갈것입니다. 마차나 자동차에 실을수 없게 되면 어깨에 떠메고서라도 끝까지 갈것입니다.》

《소좌동무, 당장 마차를 몇대 내겠습니다.》

작은 눈을 반짝이며 탁근수가 열싸게 말했으나 흥분한 최덕준은 그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까닭모를 불만으로 하여 얼굴을 찌프리면서 몸을 일으킨 그는 엄숙한 눈길로 전사들의 머리너머 어딘가를 쏘아보면서

《출발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무뚝뚝하게 명령했다.

《3두마차 한대를 내여 주단을 실읍시다. 두명의 대원과 경기관총 한문을 거기에 배치하여 호위를 담당케 하시오.》

경비분대장은 미소어린 환한 얼굴로 지휘관을 바라보며 알았노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그 마차를 선두에 세우고... 부대는 출발합니다.》

행군직일관과 구분대장들이 명령을 집행하러 뛰여가고 가까이에서 잡초에 뒤덮인 땅바닥을 차며 말들이 소리높이 투레질할 때 누워있던 현빈이 손짓으로 최덕준을 찾았다.

《미안하오만 나를 그 마차에 타고가게 해주시오. 나도 그것을 지켜야 하겠소.》

구부정하니 허리를 굽히여 듣고난 소좌는 감동하여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말없이 서로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에는 사랑과 신뢰의 뜨거운정이 넘치고있었다...

잠시후에 출발을 명령하는 나팔소리가 숲속 멀리로 울리여가고 뒤따라 지휘관들의 구령소리와 총탁이 부딪치고 마차바퀴들이 빼격거리는 명랑한 소음에 싸여 부대는 씩씩하게 떠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몸바쳐 싸우는 3대혁명소조원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선문학》 지상토론 설문을 읽으면서 우리 문학의 주인공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인 우리 문학에서의 주인공문제는 언제나 작가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어왔습니다.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이 힘있게 진행되고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모든것이 주체의 요구대로 변모되어가는 오늘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일치한 창작적지향이며 우리 혁명문학앞에 나선 초미의 문제의 하나입니다.

자주성을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가 낳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선행시대의 모든 주인공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가장 혁명적이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지니고있습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양분으로 하여 이룩된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인것입니다.

바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새로운 시대적높이에 서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그 충성의 열도를 웅심깊게 형상하는 여기에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간 전형의 참다운 사상정신적품모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미 지상토론에서 이야기되었고 또 앞으로도 논의되리라것을 념두에 두면서 시문학에 국한하여 자기의 생각을 적으려고 합

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

자기의 모든것을 당과 혁명을 위해 바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품모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여러명의 3대혁명소조원들을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교향도 다닌 학교도 성미도 각이하였고 또 말은 초소와 전공한 분야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그리고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자기들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려는 이 하나의 생각으로 일해왔다는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일-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삶의 보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긍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으로 모심으로 하여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음으로 하여 참다운 삶의 가치와 존엄을 빛내일수 있게 된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것은 곧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혁명전사로서의 본분과 의리를 다하는 길인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말을 갓 익히는 아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인민모두는 한가지 생각을 하고 하나의 일을 하여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수 있겠는가 하는 이 하나의 지향속에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며 뜨거운 충성의 열정인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는 특히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속에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라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닿던 날가리도 다 허물었》고 《회계원도 장부책을 덮으며 마지막차를 바래운》 지금 3대혁명소조원처녀는 분배장에 홀로 서있습니다.

《집집의 창고가 넘치도록》 분배몫이 들어차고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마을에 차고 넘치건만 겨우내 여름내 온벌을 들뛰며 황금의 가을을 가꾸어온 소조원처녀에게는 아무런 분배몫도 차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작은 가슴속에는 《그 어떤 큰 몫》에도 비기지 못할 얼마나 크고 숭고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있는것입니까.

너는 서있구나

온 마을을 흔드는 웃음소리와

분배차의 높은 경적소리

무어라없이 마을길로 들뛰는 아이들...

이 모든것을 뜨겁게 불안고

너의 마음은 지금

만수대의 언덕을 오르고있구나.

아, 이 땅우에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로운 길을
그처럼 행복에 부풀어 걸어온 너

이렇게

네 열정과 지혜와 충성이 스미여

그렇게도 위대한 수령님 바라시는

저 높아진 웃음과 기쁨을 안고

벌에서 커진 그 걸음으로

벌바람에 날리는 그 웃고름을 여미며

이처럼 삼가 다가서는 이 순간

아아-

쉴어올려도 자꾸만 가을바람에 날리는 머리칼을

또다시 쓸어엎으며

너의 두볼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너무도 큰 기쁨이 주르르 이슬져 흐르는구나

눈보라와 비바람도 한몸에 맞으시며 농민들에게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것처럼 심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농민들의 《높아진 웃음과 기쁨》을 그이께 삼가 보고드린 여기에 혁명전사-3대혁명소조원의 크나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것입니다.

사실 오늘처럼 우리 인민들이 자기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두고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나 하고 일을 하나 해도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마련하여 드린다는 하나의 지향과 잇닿아있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한것이며 그 어떤 정황속에서 그려질지라도 그들의 성격은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빛나는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의 전형화의 새로

은 높이가 있으며 서정적주인공-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혁명가-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보면서 10여년전에 우리 시문학에 새롭게 등장하여 사랑을 받던 천리마기수들의 형상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시기 우리 시문학의 성과로 이야기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에 대비해볼 때 오늘의 처녀소조원의 지향은 얼마나 높은곳에 올라섰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의 서정적주인공들은 누가 시킨적도 없건만 남몰래 밤에 나와 일을 하거나 말없이 성실하고 근면한 노력으로 조국을 만들어가는것으로 자기의 품모를 드러내었던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들에서는 서정적주인공-천리마기수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그들이 바치는 로력의 의의에 대하여 자랑하고 레찬하는것이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시적기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행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마련하여 드린 그것으로 하여 삶과 투쟁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기쁨》의 서정적대상인-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은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에 비해볼 때 확실히 새로운 높이에 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형의 혁명가-3대혁명소조원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역사적위업수행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인민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본질적인 성격적특징으로 되는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실례를 통하여 우리 시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가-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일반화하는데서 옹당 오늘의 시대적본질과 요구에 맞게 모든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탐구해야 하리라는것을 강조하고싶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하면서 단순히 좋은 일

을 하는 정도의 소재전달에 머문다던가 남몰래 혼자서 모든 일을 해제끼는식의 미담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자리잡은 숭고한 충성의 열도를 옹게 밝혀낼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본질적이며 공통적인 특징이므로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개성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펼쳐보일수 없으며 시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할수 없을것입니다.

사람마다 맡겨진 초소와 임무가 다르고 그들의 지혜와 능력도 차이가 있는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자기의 성실하고 근면한, 순결하고 불타오르는 충성의 열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파견하신 3대혁명소조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가장 영예로운 일로 자각한 혁명전위들이며 주체형의 혁명가의 빛나는 전형들입니다.

우리 시인들은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마다에서 날을 따라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뜨겁게 받아안고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중심으로 축원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념원,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혁명적인 사상감정을 훌륭히 형상화하여야 하며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충성의 전위-3대혁명소조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불타는 충성심을 시대의 흐름속에서 심오하게 천명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적시문학으로 하여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수행에서 진군의 나팔로, 혁명의 우렁찬 북소리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류 만